

제2449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존재 이유가 뭐냐” 화두 던진 최태원 회장 13



이철우 대표 “사회적기업 ‘걸그룹’ 아시나요” 14

코스피(7월 전주 대비) **2351.67** (+102.3P)  
코스닥 **857.63** (+42.33P)  
환율(달러당 원화) **1184.70** (-6.6원)  
금리(국고채 3년물) **0.810%** (+0.014%p)

## 말단 사원 입사·덕후 경험·타사서 경력·창업... 출발부터 달랐던 MZ세대 CEO ‘편 경영’

### 수해피해 심각한데 태풍까지 오늘 상륙 울 장마로 50명 사망·실종

#### 스페셜 리포트

자신 경험 발판 경영전면 나서  
기존 오너 3·4세 첫발과 차별  
스타트업으로 기업육성 눈에 띄어  
디지털 익숙 MZ세대 특징 드러나

#### MZ세대 주요 경영인



- 밀레니얼(1980년대생) 오너 3·4세**  
최성환 SK 상무, 최윤정 SK바이오팜 대리,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김지원 한세엔케이 대표, 홍정국 BGF리테일 대표, 홍정환 보광창업투자 투자총괄,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 담경선 오리온재단 과장
- 밀레니얼 창업자**  
박은상 위메프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이진원 티몬 대표, 윤성혁 에스티유니타스 대표, 김슬야 마켓컬리 대표
- Z세대(1990년대생) 오너 3·4세**  
서민정 아모레퍼시픽 과장, 신상렬 농심 대리, 전병우 삼양식품 부장, 한서원·한승우 BYC 이사, 정재림 KCC 이사, 배진형 토나모리 이사

MZ(밀레니얼+Z)세대가 소비 주체를 넘어 경영 전면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MZ 경영진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이를 통한 비즈니스에 특화된 경향이 강하다. SNS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이들의 특징은 기존 MZ세대 소비자로서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 대기업 오너 3·4세의 경영 참여는 물론 자신의 경험을 발판 삼아 창업에 나서는 등 한국 경제를 이끄는 새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타트업을 창업, 버젓한 기업으로 키운 MZ 경영인들도 눈에 띈다. ‘영단기’, ‘공단기’ 등으로 알려진 교육업체 에스티유니타스의 윤성혁 대표(1980년생)는 창업 5년여 만에 미국 교육업체 프리스틴 리뷰를 인수했고, 기자간담회에서 후드티와 청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비전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한국의 열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무신사의 조만호 대표(1983년생)는 기업 가치 2조 원 규모의 한국 대표 패션 온라인 스토어를 일궈냈다. ‘신발 덕후’였던 그는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무신사)’이

라는 콘셉트의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회사를 키워 현재는 대기업들과의 협업 1순위 기업으로 떠올랐다.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1982년생)는 2018년 국내 5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킨 데 이어 내년엔 토스뱅크 출범을 계획 중이다.  
이커머스 분야도 MZ 경영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마켓컬리의 김슬야 대표(1983년생)는 좋은 품질의 식품을 먹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 ‘샷별배송’으로 국내 배송 패러다임을 바꿔냈다. 위메프의 박은상 대표(1981년생)는 2010년 창업한 슈거플레이스가 위메프에 흡수합병됐고, 그는 이듬해 공동대표 자리에 올랐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올해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이후 최악의 물난리다. ▶관련기사 2·21면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6월 24일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 이후 47일째인 이날까지 집중호우로 모두 38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 지난달 8명이 숨진 이후 이달에만 30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됐다. 수도권과 충청·전남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진 탓이다.  
올해 인명피해 50명은 확정치가 아님에도 2011년 이후 최대치다. 2011년은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던 해로, 그해 호우로 77명, 태풍으로 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이후 호우 인명피해(태풍 제외)는 2012년 2명, 2013년 4명, 2014년 2명, 2016년 1명, 2017년 7명, 2018년 2명, 2019년 1명(잠정) 등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 올 들어 다시 급증했다.

피해가 커진 직접적 배경은 장마 장기화다.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가장 길었던 해는 2013년의 49일간이고, 장마가 가장 늦게 끝난 해는 1987년 8월 10일이다. 올해는 6월 24일 이후 47일째 장마가 계속돼 장마기간과 종료시기 모두 기록 경신을 앞두고 있다. 장마가 길어지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하기 쉽다. 이는 재산뿐 아니라 인명피해도 키운다. 산림청 산사태 예방지원본부에 따르면, 이달에만 667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에 태풍까지 다가가 피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제5호 태풍 ‘장미’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예상 경로대로 북상해 10일 오후 경남 해안에 상륙하면 올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첫 태풍이 된다. 연일 계속되는 폭우에 정부도 분주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여름휴가를 사실상 취소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물 폭탄에...힘들었 ‘소’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진 8일 섬진강이 범람해 전남 곡성군 고달면 일대 농경지와 주택 등이 침수됐다. 곡성을 한 마을의 축사에서 사육하는 소들이 하천 범람으로 물에 떠다니다 지붕 위로 피해 머물러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 뚫고 ‘코스피·코스닥’ 글로벌 상승률 1위

올 저점 대비 주요국과 비교해 두각  
코스닥 99.4%·코스피 60.7% ↑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증시가 말 그대로 폭락장을 연출했다. 하지만 주요국들이 추가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풀었고 이로 인한 유동성이 증시 상승을 이끌며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특히 국내 증시 상승률은 주요국 가운데서 두드러져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관련기사 16면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는 6일까지 6.6% 오른 것으로 집계됐고 코스닥지수는 같은 기간 2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의 경우 주요국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다. 같은 기간 미국의 나스닥지수가 23.8%

오르면서 코스닥의 뒤를 이었고 아르헨티나의 메르발지수 22.6%,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11.0%)가 코스닥지수와 코스피지수의 사이에 자리했다. 미국 S&P500이 같은 기간 3.7% 상승하며 코스피 뒤를 이었지만, 미국 다우지수(-4.0%), 독일 닥스30(-5.0%), 일본 닛케이225(-5.2%), 인도 센섹스30(-7.8%) 등은 지난해 말의 지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을 보면 한국 증시의 상승세는 더 두드러진다. 국가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 비교가 무색한 아르헨티나의 메르발지수를 제외하면 코스닥지수가 올해 연저점인 428.35에 비해 99.4% 급등하면서 독보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브라질의 보베스파지수가 63.8%로 코스닥 다음에 자리했고, 미국 나스닥지수가 저점 대비 61.9%, 코스피지수가 60.7%로

그 뒤를 이었다. 미국 S&P500(49.7%), 독일 닥스30(49.2%), 미국 다우지수(47.3%), 인도 센섹스30(46.4%), 일본 닛케이225(35.4%) 등과 비교하면 우리 증시의 지수 상승률은 2~3배를 앞서고 있다.  
이 같은 국내증시의 독보적 성장세는 글로벌 산업 전반이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주력 수출제품이 반도체, 배터리, 콘텐츠와 같은 품목으로 바뀌는 점이 주효했고, 이들 업종의 실적이 크게 성장한 것이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달러 약세가 다양한 비용 절감 효과를 유발하며 글로벌 전반의 실물경기를 이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신·구 산업의 조화를 빠르게 이루어나가는 것 역시 증시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레바논 폭발 원인 물질 국내 곳곳에 있는데 질산암모늄 관리 컨트롤타워 없다

여수·울산·서산·부산항 등 생산·보관  
레바논 베이루트항에서 두 차례 발생한 대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질산암모늄’이 전국 곳곳에서 생산·저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위험물을 관리할 정확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베이루트항에 저장된 2750톤의 질산암모늄이 폭발해 157명의 사상자가 났다. 질산암모늄은 농업용 비료 성분으로 주로 사용되는 원료이지만, 고온이나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쉽게 폭발하는 성질을 가졌다.  
국내에서는 전남 여수와 울산 등 국가 산업단지를 비롯해 화학공단 등에서 대규

모로 생산·보관하고 있다.  
여수에서는 후캄스가 연 13만 톤의 질산암모늄을 생산하고 있다. 여수시는 안전 점검을 나섰고, 질산암모늄 자체를 보관하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간 1억6600만 톤의 액체화물을 처리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이 많은 울산도 안전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LG화학 등이 있는 충남 서산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항에도 부도 50여 곳에 1740톤의 질산암모늄이 저장돼 있다.  
문제는 이들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이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 수마에 산사태·침수·붕괴... 사흘간 이재민 3700여명

### 도로·교량 파손 등 시설피해 3246건·농경지 1180ha 잠겨 영산강하굿둑 수문 개방 여파 목포항에 쓰레기 29만㎡ 유입

계속되는 폭우에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7일 이후에는 수도권과 중부·남부지역에 쏟아진 '물폭탄'으로 인해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이재민도 3700여 명이 발생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7~9일 광주·전남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1명이 다쳤다. 전날 발생한 전북 장수군 산사태 현장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전날보다 사망자가 2명 늘었다. 전남 담양에선 70대 주민이 하천에 휩쓸려갔다. 사흘간 이재민은 2205세대 3749명으로 집계됐다. 섬진강 제방 붕괴 등의 영향으로 전북 남원과 전남 담양·구례, 경남 산청 등에서 3540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유명한 섬진강 인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가 8일 429mm의 기록적 폭우로 화개천이 범람하면서 32년 만에 침수됐고, 이 지역 5개 마을도 침수해 300여 가구 600명

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설 피해는 모두 3246건이 보고됐다. 공공시설 2233건, 사유시설 1013건이다. 주택 287동이 물에 잠기거나 토사에 매몰됐고, 농경지 1180헥타르(ha)가 침수 등의 피해를 봤다. 도로·교량 파손은 1489건, 하천 피해 65건, 산사태는 11건으로 집계됐다. 8일 전남 구례군 문척면 사성암에선 소 10여마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침수된 축사에서 빠져나와 해발 531m 사성암까지 올라온 것이다. 구례에는 7일부터 8일 오전까지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

광주·전남의 경우, 폭우는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영산강 하굿둑 수문 개방으로 '쓰레기 후유증'을 겪고 있다. 9일 목포시와 목포해수청 등에 따르면 영산호 수위 조절을 위해 3일간 하굿둑 배수갑문을 개방하면서 목포 평화광장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시설을 비롯한 목포내항에 쓰레기 가 떠밀려왔다. 이날 오전 목포항으로 흘러 내린 쓰레기만 29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



섬진강 제방 붕괴로 침수된 전남 구례군 구례읍 주택가(왼쪽). 흙탕물 뒤집어쓴 구례읍 한 상점의 물품들.



연합뉴스

산된다. 유입된 생활폐기물과 나무·갈대 등은 약 1km에 걸쳐 떠돌고 있다.

호우 피해로 집계되지 않은 인명 피해도 있다. 6일 강원 춘천시 서면에서는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인공 수조섬 고박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북대 8명 중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고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을 촉구하고 있다. 수일간 지속된 폭우로 상류의 화천댐과 춘천댐이 수문을 개방한 상황에서 작업이 필요했다는 점에서도.

실종자의 딸은 청원글에서 "수문이 열리면 집 한 채도 빨려 들어갈 정도라고 한다. 말도 안 되고 너무 억울하다"며 "시에서 시킨 짓이 아니라면 그곳에 누가 뛰어들겠냐"고 지적했다.

이달 1일 이후로 보면 소방당국이 구조·대피시킨 인원은 1983명으로 집계됐다.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5257건, 사유시설 4234건 등 9491건이며, 농경지 피해면적은 9317ha다. 통제된 도로는 총 118곳으로 늘었다. 토사 유출로 광주·대구, 순천·완주, 대전·통영 등 곳곳에서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 철도는 충북선·대백선·영동선·경전선·광주선·장항선·전라선 등 7개 노선에서 열차 운행이 전면·일부 중단됐으며, 광주공항 활주로 침수로 항공기 10여편이 결항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정세균 총리 "기상청, 유관기관 협력 예보 적중률 높여야"

### 중대본, 집중호우 피해 대책 논의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 조치" 농림부 "재해보험금 신속 지급"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따른 비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등 수해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해 "신속



수해복구 현장 찾은 정세균(왼쪽 첫 번째) 국무총리. 사진제공 국무총리실

하게 피해도 복구해야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이런 재해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피해 지역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

역으로 선포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상예보 공급자인 기상청과 수요자인 홍수통제소, 환경부 등이 (기상 상황을) 함께 제대로, 세밀하게 평가해 예보 적중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의 수해 현장 행보는 이달 초부터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11개 부처·청 담당 실국장 등과 회의를 열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진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대규모 자연재난 위기상

황인 만큼 기존의 대책과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 조치를 해달라"며 "현재의 재난관리 시스템도 다시 점검해 개선·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9일 현재 5820개 농가의 농경지 2634헥타르(ha)가 침수, 낙과 등의 피해를 입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장마철 호우 피해 및 태풍 대응 상황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하고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농작물 수급 대책 마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등을 당부했다. 또 김 장관은 농경지 침수면적 확대에 따른 채소류 등 농작물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김 장관은 8일에도 장마철 호우 피해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연일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7일에는 김 장관이 침수 피해를 본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벼·시설채소 재배지역을 찾아 "긴장마와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피해와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고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도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방역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여러분,  
 밤잠을 줄여가며 위기 극복에 매진하는 공무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과 마음을 전하는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 “호칭·절차·형식 NO”... 혁신 앞에 한계 없는 ‘실용주의자’

## MZ세대 경영인 특징은

미국의 세대 연구 전문가인 린 랭카스터와 데이비드 스틸먼은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를 “가장 획기적이며 지금까지와 다른 신세대”라고 분석했다. 그들은 “X세대(1965~1981년 출생)가 출현하며 기성세대에 큰 충격을 줬는데, 이는 밀레니얼 세대의 출현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장 획기적인 세대가 어느새 직접 창업에 뛰어들거나, 기업 승계를 통해 기업 경영에 나서고 있다. 80년대생이 부장급부터 대표이사까지 경영 전면에서 성과를 내는 가운데 서민정 아모레퍼시픽 과장(1991년생)과 신동원 농심 부회장 장남 신상렬 씨(1993년생) 등 90년대생 Z세대도 참여가 활발하다.

학계와 재계 전문가들이 분석한 차세대를 이끌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경영인의 경영 키워드는 크게 ‘디지털 친화적 성향’과 ‘수평적 관계 지향’, ‘실용성 추구’ 등 3가지로 압축된다.

◇혁신을 사랑하는 ‘디지털네이티브’... 디지털 기술 거부감 없어=MZ세대 경영인은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이 갖춰진 시대에 태어나거나 자라나 디지털 기술이나 언어를 모국어처럼 익힌 디지털네이티브(Digital Native)다.

이들은 본인의 전공 영역과 무관하게 디지털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이를 통해 사업을 변화시키고 신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혁신에 두려움도 없다.

치과의사 출신인 이승건 비바리퍼플리카 대표(1982년생)가 ‘공인인증서 없는 송금’을 고민하며 출시한 금융 서비스 앱 토스가 1700만 명이 사용하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한 건 ‘디지털네이티브 경영인’이 혁신을 이끌어난 대표 사례다.

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커머스 무신사는

80년대 이어 90년대생 리더 등장 “결재는 스마트폰 앱으로 할게요” 디지털에 익숙·수평적 관계 형성 직원과 융합하며 발전기회 모색

키워낸 조만호 대표(1983년생)도 ‘인터넷 덕후’ 출신이다. 신발 마니아였던 그는 2001년 인터넷 커뮤니티 프리챌에 패션, 운동화 커뮤니티를 만들어 사람들과 공유했다. 2006년 이를 웹진 형태로 발전시킨 데 이어 2009년 커머스 기능을 도입했고, 이는 오늘날의 유니콘 기업 무신사가 됐다.

성태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밀레니얼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에기에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생활 편의성을 높인다”며 “디지털 기술에 대해 기본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게 이들의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직원과 수평적 관계 형성하는 ‘대표·오너’=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온 1·2세대 기업인들은 강력한 추진력과 수직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업을 성장시켰다. 그 과정에서 강압적 태도나 ‘불통’이 ‘권위’와 ‘카리스마’로 포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반면 최근 MZ세대 경영인에 대해 재계에서는 “말이 통한다”고 평가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젊은 경영진의 경우 뭔가를 말했을 때 반응이 있기 때문에 편하다”며 “실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저도 이것 알아요’라고 반응하며 (대화가) 수월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직원과는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 김슬아 대표(1983년생)가 이끄는 마켓컬리에서는 누구도 직함으로 불리지 않는다. 회사 직원들은 김 대표를 ‘소피(Sophie)’라고 부른다. 일부 대기업에서 부르는 ‘님’자도 불리지 않는다. 김 대표는 정해진 자리도 없다. 마켓컬리 본사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

## MZ세대 경영진에 대한 학계·재계의 말말말

- “가장 획기적이며 지금까지와 다른 신세대” 미국 세대 연구 전문가 린 랭카스터와 데이비드 스틸먼
- “어릴 때부터 디지털에 익숙한 디지털네이티브... 유연한 자세가 특징” 성태운 연세대 교수
- “모르는 사람과 의사소통에 거리낌이 없다” 이은형 국민대 교수
- “대면보고보다는 메시지 등 비대면 소통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세대” 인명의 재계 관계자
- “플랫폼 사업을 중시하고 그 안에서 직원과 협력, 융합해 발전을 도모한다” 김익성 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



은 대표와 직원 자리를 구분할 수 없다.

신동원 농심 부회장 장남으로 지난해 농심에 입사한 신상렬(1993년생) 대리는 올해 진급해 경영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입사 초기 공장에 다니면서 실무를 배웠다”며 “다른 직원들과의 협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장녀로 그룹전략팀에서 일하는 서민정(1991년생) 과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베인앤컴퍼니에

서 일하다 지난해 과장으로 아모레퍼시픽에 입사했다.

◇“대면보고 필요 없어요”... ‘실용성’ 강조= 식품업계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온 A 씨는 젊은 경영진의 경우 업무상 실용적인 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예컨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경영진에 보고하려면 문서를 하드카피로 프린트하고, 따로 결재서류를 만드는 게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대면 보고 자체가 드물고, 대부분의 소통은 메시지로 한

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경영진의 경우 비대면이 더 편리하고, 즉각적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MZ세대 경영진은 불필요한 ‘절차’와 쓸데없는 ‘형식’을 업무 방해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김익성 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동덕여대 교수)은 “MZ세대 경영진은 플랫폼 안에서 직원과 융합, 협력해 발전의 기회를 모색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안경우 기자 noglasses@

## ‘MZ세대 경영진’ 성적표는

**김슬아** 새벽배송 적시타 ‘마켓컬리’ 웃고

**임지선** 젊은패기 핫스윙 ‘보해양조’ 울고

MZ세대 경영인은 젊은 감각을 앞세워 도전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젊은 패기만으로 밀어붙이기에 시장은 냉혹하다. 트렌드를 파악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도 하지만, 거시적 안목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 마켓컬리 창업자인 김슬아 대표가 있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5월 출간한 ‘마켓컬리 인사이트’에서 최근 트렌트에 가장 잘 대응한 국내 기업으로 이 회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1983년생인 김 대표는 골드만삭스와 맥킨지앤드컴퍼니 등 글로벌 투자 기업에서 경영 감각을 익힌 뒤 국내에선 생소한 새벽배송(샷별배송)을 무기로 2014년 마켓컬리를 창업했다. 대형마트가 방방곡곡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국내 유통 시장에서 샷별배송의 안착을 예상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창업 당시 29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지난해 4289억 원으로 4년 새 150배 치솟았다. 같은 기간 회원 수는 5만 명에서 올해 5월 기준 500만 명으로 100배 불었다. 일회성 고객이 아닌 충성고객 비중이 높아 사업 지속에 대한 전망도 밝다. 지난해 마켓컬리 고객의 재구매율은 61.2%로, 일반 이커머스 시장 평균(28%)의 2배가 넘는다.

쿠팡에 이어 신세계·이마트의 SSG닷컴,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유통 공룡들

의 경쟁에도 마켓컬리는 5월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 총 4200억 원의 투자를 끌어내며 업계 기대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젊은 감각만의 도전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표를 낸 사례로는 보해양조의 오너 3세 경영인 임지선 대표가 꼽힌다. 1985년생인 임 대표는 2015년 전무 취임 후 ‘아홉시반’과 ‘잎새주부라더’, ‘부라더 #소다’, ‘복받은부라더’ 등 다양한 신제품을 내놓으며 공격 경영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신통치 않다. 2015년 매출 1238억 원에 82억 원의 흑자를 거둔 보해양조는 그가 취임한 후 매출도 떨어지고, 60억 원의 적자까지 기록했다.

그의 첫 작품인 저도 소주 ‘아홉시반’은 출시 8개월 만에 마케팅 비용도 회수하지 못한 채 접어야 했고, 전남 지역 공략용 소주 17.5도 ‘잎새주부라더’는 경쟁사 하이트진로의 17.9도 ‘참이슬’에 안방을 내주는 역효과를 냈다. 이어 론칭한 ‘부라더#소다’의 성적도 좋지 않아 2018년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젊은 CEO들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감각은 뛰어나지만 전 연령층을 커버하는 장기적 시각을 제시하는 데는 부족함이 종종 보인다”면서 “좋은 제품으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보편적 가치와 원칙이 바로 선 경영철학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기업 10곳 중 4곳, 코로나로 감원해야 할 상황”

## 상의, 기업 301곳 조사

국내기업 10곳 중 4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조정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실제로 감원을 실시한 기업은 1곳에 불과해 기업들이 일자리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및 임금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 조사 참여기업의 40.5%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고 업무량이 줄어 고용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인원을 감축한 기업은 9.0%

## 매출 감소로 업무량 줄었지만 실제로는 9%만 인원 감축 근로시간 조정 통해 일자리 유지... 신규 채용 위축될 듯

로, 다수 기업들은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휴직 등(18.6%)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별다른 조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용유지 부담을 기업이 모두 떠안은 경우도 12.9%나 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실제 일감이 줄어들면서 회사 상황이 악화됐지만 직원을 해고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다”면서 “기업들도 상황이 좋아졌을 때 숙련인력이 부족하면 업무처리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직원들도 회사 사정을 이

해하기 때문에 일시휴업 등에 기꺼이 동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실업률 4%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당초 4%대 수준이었던 실업률이 코로나19가 본격화되자 4월부터 10%이상을 지속 중이다. 프랑스(8.1%), 이탈리아(7.8%) 등도 비교적 높은 실업률을 기록 중이다.

다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신규채용은 위축될 전망이다.

올해 ‘채용 일정’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신규채용을 포기’(19.3%) 또는 ‘채용일정 연기’(31.2%)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계획대로 완료’하거나 ‘계획대로 진행 예정’인 곳은 49.5%에 불과했다.

‘신규채용 규모’를 기업에 물었더니 ‘당초 계획보다 축소했거나 축소를 고민 중’이라는 응답이 40.7%에 달했다.

채용방식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수시채용과 비대면방식 채용이 확대됐다. ‘코로나19 이후 채용방식에 어떤 변화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수시채용을 확대했다’고 답한 기업이 38.7%에 달했고, ‘비대면 방식을 활용했다’는 응답도

7.0%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여파는 기업의 임금결정에 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임금결정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55.5%가 ‘상반기에 마무리했다’고 응답해 예년에 비해 다소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응답은 24.3%였고, ‘일정이 지연되고 있거나 아직 정하지도 못했다’는 응답도 17.0%에 달해 임금결정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반기에 임금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기업들 가운데 ‘임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은 36.3%에 그쳤고, ‘동결 예정’이라는 응답이 54.8%로 절반을 넘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장마에 채소 가격 급등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채소 가격이 들쭉이고 있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6일 기준 청상추와 양배추, 배추 등 대표 업체류(임출기채소) 도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60~107% 급등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 일시휴직 1명 늘면 다음달 취업 0.35명 감소

### 한경연 ‘올 일시휴직’ 보고서 2개월 후엔 취업자 0.58명 ↓ 휴직 길수록 고용 부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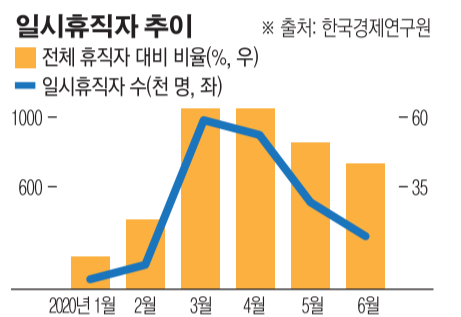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업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일시 휴직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일시 휴직자가 1명 늘 때마다 그 다음달 취업자는 0.35명이 감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일시휴직자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9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4월, 5월의 일시휴직자 수는 각각 161만 명, 149만 명, 102만 명이었다. 일시휴직자가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한 2020년 3~5월 평균 기준으로 일시휴직자의 약 58.2%가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이었다. 특히 전체 일시휴직자 가운데 여성 비중이 62.5%로 남성(37.5%)보다 높아 타격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휴직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자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증가시켰다.

상반기 15~64세를 대상으로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그



다음 월에 취업자는 0.3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시휴직자가 다음 월에 비취업자가 될 확률이 최대 약 35%라는 것과 같은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취업자 감소는 유의미한 실업자 수의 증가로 나타나기 보다는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그 다음 월에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0.33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돼 취업자 감소분 0.35명 가운데 대부분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시휴직자 1명 증가는 2개월 후에 취업자를 0.58명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시휴직자가 2개월 후에 비취업자로 전환될 확률은 최대 58%라는 것과 같은 영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내년도 예산안 7~8% 늘어난 550조 전망

### 한국판 뉴딜·의무지출 늘며 30조 내외 추가... 재정 부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이 올해 분예산 대비 7~8% 확대된 550조 원대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주 중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재정정책 기조와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다. 애초 10%대 총지출 증가가 예상됐으나, 정부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급격한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분예산 규모는 512조3000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9.5% 확대된 규모다.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합산하면 올해 총지출은 546조9000억 원이 달한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 추경을 합산한 총지출을 다소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예산 대비로는 7~8% 큰 규모다. 가장 큰 재정지출 확대요인은 한국판 뉴딜이다. 2025년까지 국비 114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3차 추경에 편성된 4조8000억 원을 제외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22조 원가량 지출된다. 여기에 기초연금액 인상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급인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늘어나는 의무지출을 고려하면 새로운 재정사업이 추가되지 않아도 올해 분예산보다 30조 원 내외의 돈이 더 나간다.

이 정도 지출 증가만으로도 재정건정성에는 무리가 간다. 정부가 올해 분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 대

비 국가채무비율은 3차례의 추경 편성 및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43.5%까지 오르게 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111조 5000억 원 적자)도 역대 최대 폭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세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올해 기업 실적 악화로 내년도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경제상황이 정상화하지 않으면, 계획된 지출만으로 기존 지출을 구조조정하거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추가적인 지출 확대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총지출 규모는 이달 중순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현재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편성 중이며, 총지출 증가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상반기 韓 겨냥 수입규제 226건 ‘역대 최대’

### 반덤핑 165건... 미국 44건

올해 상반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가 9일 내놓은 ‘2020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8개국에서 총 226건이 이뤄졌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상반기에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17개국에서 총 32건(반덤핑 17건·세이프가드 15건)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전체 규제 국가 수는 1개국 감소했으나 규제 건수는 16건 증가했다.

상반기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반덤핑 165건(73%), 세이프가드 52건(23%), 상계관세 9건(4%)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4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캐나다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경우 2015년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중국산 타이어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올해 5월 한국과 태국, 대만, 베트남산 타이어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등 아시아 국가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확대했다.

올 하반기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면서 무역 장벽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 글로벌 공급과잉 상태인 중간재를 타깃으로 한 수입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 보호 차원에서 수입규제 적용 범위를 의료용품이나 의약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경우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 상대방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조짐을 보인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결함추정요건에 ‘반복 화재’ 추가... ‘제2의 BMW 화재 사고’ 막는다

### 결함조사편 15일 내 자료 내야

정부가 제2의 BMW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결함추정 요건에 반복된 차량 화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국도교통부는 올해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은 2018년 여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BMW 화재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안전결함의 정의를 자동차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차량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구조·장치로 인해 인명 피해 사고가 반복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

우 결함추정 요건으로 추가했다. 결함추정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나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조사 시 권한도 강화했다. 또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연구원에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흑석2 등 17곳 '공공재개발' 관심... 관건은 '사업성'

## '임대주택' 참여 조합 윤곽

임허가 10년→5년 단축 인센티브  
"임대 늘리더라도 사업속도 내자"  
전농동·증산4구역 등 참여 의사  
후보 거론지역 매물 품귀현상도

공공재개발 사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더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비사업장에서 관심을 보인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7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공공 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재개발 구역은 17곳이다.

공공 재개발은 LH나 SH 등 공적 기관이 재개발 사업에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달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에서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수도권에 주택 4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재개발에 참여하는 구역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 재개발 구역에 용도지역 중(種) 상향·용적률 인상 혜택을 주고 분양가 상한제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통상 10년간 걸리는 각종 인허가 기간도 5년으로 줄어든다. 대신 공공 재개발 사업장에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주택 공급량 가운데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

### 공공재개발 사업 개요

-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 LH, SH 등 공기업이 시행자로 참여
- 조합원 물량 제한 물량 중 절반 이상을 공적 임대 주택으로 분양
-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 인센티브 부여
- 용적률 인상 혹은 용도지역 상향으로 주택 공급 확대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
- 사업지 저리 용자 제공

### 공공재개발 사업 주요 후보지

구역명	위치	주택 공급 규모	정비 구역 지정
흑석2구역	동작구 흑석동	508가구	2008년
미아11구역	강북구 미아동	598가구	2006년
성북1구역	성북구 성북동	2044가구	2004년
증산4구역	은평구 증산동	2884가구	2012년

※ 성북1구역: 추진위(예정 구역), 증산4구역: 추진위(해제 구역)



간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일반분양 주택도 최장 5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주택 전매도 길면 10년 동안 제한된다.

이 같은 의무 규정 때문에 정비 업계에선 공공 재개발에 미지근한 분위기가 짙었다. 임대주택 의무 확보 비율 등을 고려하면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3구역에 공공 재개발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애초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해제구역은 공공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했던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이 이 때문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임대주택 확보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개발 구역 가운데 공공 재개발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곳으론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과 강북구 미아동 미아11구역 등이 있다. 미아11구역과 흑석2구역

에선 각각 2006년과 2009년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허가됐으나 주민 갈등 등으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성북구 성북동 성북1구역이나 동대문구 전농동 8·9구역 등도 공공 재개발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병천 성북1구역 추진위원장은 "임대주택 의무 공급이 부담이지만 용적률이나 종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준다면 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8·4 대책으로 공공 재개발 참여 기회가 열린 해제 구역은 공공 재개발에 더 적극적이다. 공공 재개발을 발판으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어서다. 은평구 증산동 증산4구역이나 성북동 성북3구역 등이 공공 재개발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증산4구역 관계자는 "공공 방식으로도 재개발할 수 있다면 추진해야 한다는 조합원이 많다"고 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공

공 재개발 설명회를 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정식 공모가 다음 달로 예정돼 있어 지금 구체적인 조합 이름 등을 밝히게 되면 해당 지역에 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선 매물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성북1구역에선 전용면적 57㎡, 지분 32㎡ 짜리 다세대주택 가격이 4억8300만 원까지 올랐다. 6월 실거래 가격(3억9500만 원)과 비교하면 값이 두 달 만에 9000만 원 가까이 뛰었다. 증산4구역 내 전용 63㎡ 다세대주택 지하층이 6억30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 다세대주택에선 지상층도 4억 원이 안 됐다. 이들 구역을 포함해 공공 재개발 후보지에선 물건이 없어도 계약금을 공인 중개사에 걸어놓는 입도선매 투자자까지 늘고 있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이들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9월 시범사업지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시범사업지 윤곽은 연말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박종화 기자 pbell@

## 주담대 막히니 전세대출 '풍선효과' 정부규제 무색... 올해만 14兆 늘어

### 전셋값 상승 5대 은행 대출 급증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대출 금액은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 2월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이는 등 올해 7월까지 증가폭이 전년보다 14조 원 가까이 늘었다.

9일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94조55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에 비하면 13조 6024억 원(16.9%) 증가한 수치다. 전달보다는 2조201억 원(2.2%)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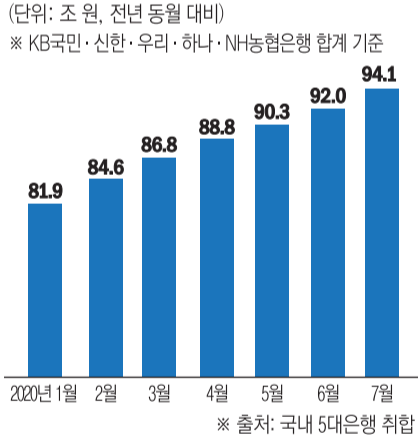
전세자금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 폭은 올해 2월 2조7034억 원으로 관련 집계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컸다. 이후 3월(2조2051억 원)과 4월(2조135억 원) 차츰 감소해 5월(1조4615억 원)과 6월(1조7363억 원)에는 2조 원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2조 원대로 올라가면서 증가했다.

올해 2~4월 전세대출이 크게 늘었던 것은 정부 대출 규제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과 후속 대책으로 고가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주택 매매 수요가 감소하고 전세 수요가 늘었고, 전세 가격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7월 급증세는 다소 이례적이다. 보통 7월이 정파, 휴가 등으로 이사 수요가 적은 임대차 시장 비수기이고, 특히 전세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

### 전세자금대출 잔액 추이



년 이후 가장 적었다. 전세, 반전세, 월세까지 포함한 거래량은 8344건으로, 계약이 가장 많았던 올해 2월의 43% 수준이었다. 경기도 전월세 거래량은 1만2326건으로, 2월의 약 45%에 그쳤다.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지난달 10일부터 적용됐지만, 전세대출 감소로 이어지는 않았다. 정부는 규제 지역에서 시세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기존 전세대출을 갚도록 하고, 시세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했다.

결국, 전세대출 증가는 가격 상승이 이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고 전세대출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졌는데도 증가 폭이 가팔랐다는 것은 가격 상승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매 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달보다 0.44% 올랐다. 서울은 전달 대비 0.68%, 수도권은 0.63% 증가율을 보였다.

김범근 기자 nova@

노란우산은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연 최대 500만 원 소득 공제**

**공제금 압류 금지**

**중장기 목돈 마련**

**연 복리 이자 지급**

마음 똑 놓고 오래오래~

#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씁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소득과 법인사업의 대표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KBIZ 중소기업중앙회**

# 등 돌린 민심에... 靑 쇠신 이어 '3기 개각' 단행하나

### 참모 잇단 실책에 민심 이반... 양정철·최재성 등 비서실장 거론 野 "홍남기·김상조 책임져야"... 김현미·박능후 장관 등 교체설

여권에 대한 부정적 민심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청와대 쇠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개각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일괄사의를 표명한 만큼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적 쇠신 차원에서 현 정부 출범 직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수 장관 교체를 포함한 큰 폭의 개각 가능성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7일 사표를 제출한 노 실장 후임으로 여권에서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주러시아대사, 최재성 전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태영 노무현대단 이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의를 받아들여 비서실장을 먼저 선임한 후 수석비서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도 청와대 후속 인사가 이

뤄진 뒤 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늦어도 10일 전에는 이들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의를 밝힌 6명 중 4명이 부동산 관련 구설에 오른 적이 있지만 특히 강 정무수석과 김 민정수석 등이 우선적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강 수석은 내년 재보궐 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를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져 왔으며, 다주택자인 김 수석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내놔 "팔려야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다만 주요 업무 공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부만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청와대 참모진의 잇따른 실책이 민심 이반으로 이어진 만큼, 실제 부동산 정책을 만든 이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지난해 8월 이후 큰 폭의 개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한몫

한다. 그동안 개각 가능성이 컸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주도하는 만큼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다. 최근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은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홍 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현 정부 '원년멤버'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원년 멤버이지만 최근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한 만큼 유임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도 노 실장 후임으로 거론되면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한편, 청와대 참모진 개편 가능성에 당 대표 선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부동산 여론 악화로 청와대 입지가 곤란해진 상황에서 당청 관계 맺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6개월 만에 해외출장 나선 강경화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2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6개월 만에 해외에서 대면외교를 재개한다. 연합뉴스

## “대부업 최고이율 10%로 인하”... 與 법안 발의 잇따라

### “금리 내렸는데 24% 너무 높다”

친서민 법안 발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높은 이자율로 서민 목을 찢고 있는 대부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는 2018년 대부업 개정으로 최고 이율이 24%까지 낮춰진 지 2년 만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국·문진석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따

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부업 시장의 위축 △연체율 상승 및 피해자 상담·신고 증가 등으로 서민층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발의된 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 최고이자율 연 10% △10% 초과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소기업 대부 이자율 10% 이하 등이다.

앞서 송갑석·박홍근·민형배·김철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법정 최고이

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힘입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보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부업 개정안 발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부업 위축으로 서민들의 돈줄이 더욱 막힐 수 있어서다. 이에 햇살론 등 보증부 대출 확대 등의 대안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이번엔 여당도 '4차 추경' 필요성 제기

### 신동근 의원 “전국 피해 대처를” 與 지도부 “우선 예비비로 해결”

신동근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긴 장마와 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막대하다”며 4차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쓸 수 있는 예비비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이는 경기 하강을 억제하고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발생하는 고용 위기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4차 추경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4차 추경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지역구인 전북 남원·임실·순창의 수해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권에서도 4차 추경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수해 복구용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 예산 편성 시 예상치었던 39.8%에서 43.5%까지 오른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예비비로 재해 복구를 최대한 해결한 후, 필요할 경우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여부는 피해 규모를 보고 생각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현대백화점그룹 h point

고객과 함께 생활 속 친환경을 실천합니다

-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면세점
- 한섬
- 현대리바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현대Hmall
- 더현대닷컴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국내 기업 최초로, 현대백화점그룹의 친환경 경영활동이 UN의 친환경 우수 모델로 인증 받았습니.



Green Friends

## 꼼꼼한 완충재

현대리바트는 100% 재생 종이로 만든 벌집 구조의 '허니콤' 완충재를 사용합니다. 연간 스티로폼 23만개의 사용을 줄인 허니콤은 가구와 환경을 꼼꼼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플라스틱 생수병을  
종이로 바꿀 수 있을까?



페플라스틱 원단을 활용한 의류 잡화 브랜드  
뽕세누 / 박준범 대표



청년 창작가와 소상공인이 공생하는 디자인 기업  
000간 / 신윤예 대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종이팩 생수 브랜드  
DE Studio / 이창현, 오승범 대표

↑  
폐플라스틱을 패션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

↑  
청년 작가와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QR코드를 찍어 [마지막승부]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 사회의 문제는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는 늘리는 창업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하나의 창업이 성공하면  
또 하나의 일자리가 생기고

하나의 소셜벤처가 성장하면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사회혁신창업가들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소셜벤처아카데미 소셜벤처창업가 육성을 위한 11주 코칭 프로그램 **하나파워온챌린지** 다양한 단계의 사회혁신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 트위터도 러브콜... 판 커진 '틱톡 인수전'

### MS 인수협상 와중에 트위터도 "잠재적 합병" 예비협상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둘러싼 인수전이 점입가경이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미 바이트댄스와 틱톡의 미국 사업 등을 놓고 인수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까지 뛰어들면서 미국 기업 간 틱톡 인수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위터가 틱톡과 잠재적 합병(preliminary talks)에 대한 예비협상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병안에는 MS가 이미 협상 중인 틱톡의 미국 사업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식통들은 트위터와 틱톡의 거래가 성사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전했다.

트위터의 잠전 소식은 틱톡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면서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와 미국 사람 및 기업 간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한은 6일로부터 45일 뒤로, 이 기간 안에 미국 사업부를 매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한발 물러나 미국 회사의 틱톡 사업 인수를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하라고 못 박기도 했다.

MS는 트위터보다 먼저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를 추진하며, 현재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여겨지고 있다. MS는 수주 간 바이트댄스와 협상을 벌여왔으나 이 사실을 공식화한 건 이달 초였다. 당시 MS는 성명을 통해 "사티아나델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MS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을 넘어 인도, 유럽 등 틱톡의 해외 사업 전체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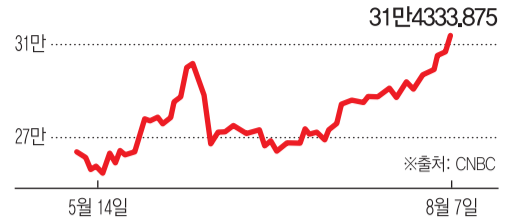
트위터가 틱톡 인수전에 뛰어들기는 했지만, 현재까지는 MS가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자금 면에서 MS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WSJ는 틱톡의 미국 사업 가치가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트위터가 이러한

규모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현재 트위터의 시가총액은 290억 달러(약 34조4665억 원)인 반면, MS는 1조6000억 달러에 이른다. 다만 한편에서는 트위터의 규모가 MS보다 작기 때문에 되레 반독점법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만약 트위터와 틱톡의 합병이 현실화하면 짙막한 글과 이미지 위주였던 트위터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 수 있다고 WSJ는 예상했다.

한편 MS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MS의 틱톡 인수 추진과 관련해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격'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미국 IT 전문지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암호화 이슈처럼, 소셜미디어 비즈니스에서 몸집이 커지는 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고 조언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최근 3개월 버크셔해서웨이 주가 추이

(단위:달러, A주 총가기준)



## 애플 덕에 체면 선 버핏 버크셔 2분기 흑자전환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가 애플의 주가 상승 등에 힘입어 1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버크셔는 이날 올해 2분기 순이익이 약 263억 달러(31조 2576억 원)로, 작년 동기 141억 달러에서 약 87%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1분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충격으로 497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예상외로 빠르게 회복하는 분위기다. 다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줄어든 약 55억 달러로 집계됐다.

실적에 '효자 노릇'을 한 건 애플이다. 버크셔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애플은 2분기에 주가가 51.4%나 뛰면서 버크셔의 순이익 증가에 기여했다. 버크셔는 2분기 말 시점에 920억 달러어치의 애플 주식을 보유했다. 이는 2070억 달러 규모의 버크셔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장은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버핏이 2분기도 여전히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버핏은 올해 2분기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에 집중했다.

보유 현금도 덩달아 쌓여만 가고 있다. 2분기 말 기준 버크셔가 보유한 현금은 약 1466억 달러로, 직전 분기 말 1373억 달러에서 크게 늘었다.

다만 하반기에는 행보가 달라질 수 있다. 버크셔는 지난달 5일 도미니언에너지의 천연가스 운송 및 저장 부문을 부채 포함해 97억 달러에 사들이기로 했다. 이는 3월 코로나19 충격이 금융 시장을 뒤흔든 이후 버크셔가 나선 첫 대규모 투자다. 이를 시작으로 그동안 현금만 쌓아둔 채 이렇다 할 기업사냥에 나서지 않던 버크셔가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변효선 기자 hsbyun@

## 트럼프 '실업수당 연장' 날치기 서명

### 의회 심의 건너뛰고 행정명령... 민주당 "월권행위" 소송 불사

미국 대선이 9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다급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추가 경기부양안이 의회에서 결렬되자 급여세 유예와 실업수당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마음대로 서명을 해버린 것이다. 세제는 의회의 전권 사항인 만큼 야당인 민주당은 "월권 행위"라고 짚으며 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코로나19 속 정치 혼란이 미국 경기 둔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여세

유예와 실업수당 연장,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주택 강제 퇴거 일부 정지 등 4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발표하고 서둘러 서명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3월에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는데, 특별 실업수당 등 일부 고용 유지 조치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잇따라 적용 기간이 만료됐다.

실업수당은 수급자가 2500만 명으로 규모가 커서 7월 말 종료되면 집세를 내지 못한 실직자들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의회는 7월 말까지 혜택의 추가 연장을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공화당은 주 200달러로 감액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기존과 같이 주 600달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는 바람에 결국 협의가 틀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골프 리조트에서 코로나19 관련 추가 부양안에 대한 행정조치에 서명한 뒤 이를 보여주고 있다. 베드민스터/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는 또 연간 전체 세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급여세에 대해서도 9월부터 12월 말까지 징세를 유예하도록 재무부에 지시하고, "11월 대선이 끝나면 납세를 면제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헌법은 세제 결정권을 의회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 이번처럼 대통령령으

로 연방정부의 지출을 결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트럼프는 작년 2월에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를 행정명령으로 거출한 전력이 있다. 미국 의회는 여야가 모두 반발, 법정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늘색이  
사리질지도  
오릅니다

초미세먼지 나쁨  
1년 70일 이상

아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 가장 취약

아이들이 파란 하늘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앞장섭니다.  
**함께 해주세요!**



# 수백년 썩지 않는 폐마스크, 하루 33억장씩 버려져



## ‘코로나 쓰레기’의 역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후유증이 벌써 불어닥치고 있다. 코로나19 최대 방역 도구들이 쓰레기로 변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서다. 이른바 코로나 쓰레기의 역습이다.

코로나발(發) 쓰레기가 지구로 덮치고 있다. 최대 방역 도구였던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은 물론 '집콕' 확산으로 음식 배달이 늘면서 포장 쓰레기가 급증한 탓이다.

안 그래도 지구의 숨통을 조여오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코로나19로 더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영국, 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그동안 추진해오던 플라스틱 사용 제한 캠페인도 보류했다.

전문가들은 넘쳐나는 코로나 쓰레기를 방치하다가 팬데믹보다 더한 환경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코로나19로 발생한 쓰레기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추산된 양만 해도 엄청나다. 중국 환경부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중국 전역에서 처리된 의료 폐기물량은 약 25만6000t이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의 병원에서 코로나 발생 절정기에 매일 240t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했다. 평소의 6배 증가한 수치다. 5월 중국에서 하루 2억 장이 넘는 마스크가 생산됐다. 미국 컨설팅회사 프로스트앤드설리번은 미국에서 두 달 간 코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세계적으로 '핫 아이템'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마스크다. 마땅한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가 바이러스 감염에서 지켜줄 유일한 예방책이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돼 버린 마스크가 인류에 거대한 쓰레기 문제를 야기하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마스크는 월평균 1000억 장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마스크가 흙으로 돌아가는 천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마스크는 땅에 묻히더라도 수백 년간 썩지 않으며, 바다에 버려지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함부로 버려진 마스크가 환경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는 식물 유래 소재를 사용한 마스크 개발이 잇따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마스크 소재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이버가 프랑스 남부 앙티브 인근 바닷속에서 수거한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을 들고 있다. 해양정화작전인스타그램 캡처.

### 일회용품·의료폐기물 급증

中 우환병원, 쓰레기 6배 증가  
美 플라스틱 용품 4800t 늘어  
해안에 등등... 환경파괴 주범

19로 발생한 의료 폐기물량은 1년치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추산했다. 태국 환경 관련 기관에 따르면 배달 음식 증가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하루에 1500t에서 6300t으로 증가했다.

각국에서 나온 '코로나 쓰레기'는 세계 각지의 바다와 강가에 나뒹굴고 있다. 홍콩 환경단체 오션스아시아는 2월에 해안과 심해에 떠다니는 일회용 마스크를 대거 수거했다. 단체 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딱 6주 만에 관련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들었다"면서 "일회용 마스크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하천이나 해안에서도 코로나 쓰레기가 대거 발견되고 있다. 터키와 유럽 해안도 의료 폐기물에 뒤덮였다. 프랑스 남부를 중심으로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

### 땅으로 바다로... 생태계 재앙

동물·물고기들이 삼킨 마스크  
먹이사슬 따라 인간 몸에 축적  
UN "환경보호, 국가협력 강조"

는 비영리 시민단체는 5월부터 마스크와 소독용 알코올 용기가 해안가 등지에서 나뒹굴기 시작했다. 단체 측은 "프랑스에서 20억 개 이상의 일회용 마스크가 주문된 것을 고려하면 곧 지중해에 마스크

가 해파리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 환경단체들은 이런 쓰레기가 코로나19 이전부터 해양 생태계 파괴 주범이었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경종을 울린다. 일회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방역 도구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수술용 마스크는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플라스틱을 포함한 부직포로 돼 있어 생분해가 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은 물속에 소용돌이치면서 대부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불리는 작은 조각들로 분해된다. 많은 어류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고 이를 먹이로 혼동한다. 적어도 600종의 다양한 야생동물이 오염으로 인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따라 인간이 섭취하고 체내에 축적되는 등 생태계와 인간을 위협한다.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매년 800만t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는데, 이는 해양 쓰레기의 80%를 차지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호장비 공급이 매달 40% 증가해야 팬데믹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는 한, 코로나 쓰레기가 인류에 재앙이 돼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변화하지 않으면 코로나발 쓰레기 대란은 생태적 재앙의 시작일 뿐이라고 각국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 메시지에서 "팬데믹과 싸우는 만큼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보존 및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해 세계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방역 필수품’서 정치·개성·신념의 상징으로...

### 진화하는 마스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만 해도 미국과 유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착용이 애국"이라고 강조하는 등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이제 마스크는 보호구이자 개성을 드러내는 패션 용품의 한 종류, 의사 전달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 50개 주 중 36개 주가 공공장소와 다중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미국에서도 마스크는 낯설지 않은 아이템이 됐다. 마스크에 대한 반감이 유독 심했던 미국인들은 이제 각색된 마스크를 찾느라 고민한다. 다양한 마스크 중에서도 유명인들이 착용한 마스크는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미국의 배우 겸 사업가 킴 카다시안의 보정속옷 브랜드 '스킵스'에서 출시한 심리스 마스크는 연일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착용한 파란 마스크는 언론에 공개된 뒤 주문량이 폭주하기도 했다.

유럽에서도 마스크가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4월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마스크에 자신이 응원하는 스포



왼쪽부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킴 카다시안이 출시한 심리스 마스크,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고 적힌 마스크.

“어차피 써야한다면 의미있게”  
정당·로고·국기 등 무늬 다양  
‘흑인 인권’ 소신 드러내기도

츠팀이나 애니메이션 로고, 국기 등을 그려 넣는 유행이 번졌다. 최근 마스크 디자인에 뛰어난 모자 전문 디자이너 클라우스 뮐 바우어는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크를 옷이나 피부, 눈 색깔에 맞춰 선택할 수 있게 디자인했다"며 "앞으로 마스크는 필수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잘 적용하고 싶었다"고 했다.

마스크의 인기가 높아져 판매 장소도 다양해졌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지하철역에 마스크 자판기가 생겼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마스크를 쉽게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면 소재 다용도 마스크 가격은 5.5유로(약 7703원)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네일 샵과 세탁

소에서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는 개인의 패션 감각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소신을 드러내는 아이템이기도 하다.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에서는 시민들이 검은색 마스크 위에 하얀 글자로 시위 구호를 적어 넣는 게 어색하지 않다. 니콜라 스테르너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타탄체크 무늬 마스크를 쓰고 나와 화제를 모았다. 타탄체크 마스크는 스코틀랜드의 전통을 상징한다.

마스크가 패션 용품으로 소비되는 것에 우려스러운 반응도 나온다.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마스크가 유행의 영역으로 이동하면 정체성의 상징이 된다"며 "마스크는 개인을 표현하는 첫 번째 표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불평등의 표식이 될 수 있다"며 "자본주의에서 기회는 종종 위기의 시기에 찾아온다"고 지적했다.

최혜림 기자 rog@

## 꽃, 펄프로 만든 페이스 쉴드... 日, 녹말 원료 마스크 생분해·친환경 소재 개발 박차

### 의료 폐기물 해법은

버려진 마스크가 환경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세계 곳곳에서 식물 유래 소재를 사용한 마스크 개발이 잇따르는가 하면,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조금 활용 등 사회 전체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세계 각국 대학과 기업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마스크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영국 기업들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페이스 쉴드 개발에 성공했다. 얼굴을 가리는 부분에 목재 펄프를 사용하면서도 투명성을 확보했다. 가격도 개당 1.5파운드(약 2300원)로 기존 플라스틱 제품과 별 차이가 없다. 목재 펄프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소재로 만들었음은 물론,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일주일에 2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도 정비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은 나무섬유에서 미생물에 의해 물이나 이산화탄소 등에 분해되는 생분해성 마스크를 개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식물에서 추출한 녹말 등을 이용해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가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친환경 소재 개발뿐만 아니라 소비자 개개인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경

정책 전문가인 오사카상업대학의 히라다 사다오 준교수는 "부직포 마스크는 흙으로 돌아가는 천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우선은 마스크가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소재를 사용한 제품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적은 소재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존재하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감염방지 대책을 위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필요한 의료 현장에 우선해 돌리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감염 대책 사이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히라다 교수는 "환경 문제를 개인의 양심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무엇이 감염 대책에 유효하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실현 가능한지 우선순위를 정해 생각하고, 보조금을 활용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3년 설립된 벨기에 브뤼셀 소재 비정부기구(NGO) '제로 웨이스트 유럽(Zero Waste Europe)'의 조앤 마크 사이먼은 "공중 보건과 환경 중 하나를 희생하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전염병에 대비하면서도, 사용한 일회용품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 이달 말 가동 '빅테크 협의체' '불공정 경쟁 논란' 해법 찾는다

유관기관·IT업계·전문가 참여  
소비자 보호·보안 등 중점 논의

금융당국이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와 핀테크(금융기술), 금융업 공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이르면 이달 말 가동한다. 그동안 금융권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업 진출을 두고 '기술어린 운동장'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협의체를 통해 이들의 갈등이 해결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빅테크 협의체에 참여할 위원 구성을 끝내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협의체에는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정보기술(IT) 업계,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다.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토대

로 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가 금융업에 활발하게 진출하자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이 바짝 경계하고 있다. 빅테크 업체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경쟁 사안을 두고 금융권과 의견차이가 극명한 만큼 의견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협의체는 금융권·빅테크·핀테크 간 공정 경쟁, 시스템 리스크, 소비자 보호, 금융 보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은 역시 공정 경쟁이다.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에 금융권이 '특혜'라며 비판하고 있다. 금융권은 "빅테크가 통장, 증권계좌, 보험 중개 판매 등의 사업을 시작하자 빅테크에는 유독 규제 문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지난달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빅테크 진출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

다. 지주사는 계열사 간 정보 공유가 제한적인데 빅테크는 계열사에 정보 제공이 쉽다. 또 마이너더 산업(본인신용정리관리업)에서 금융사와 빅테크 간 교환 가능한 데이터 범위가 불공평하다는 점 등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지적 사항이었다.

간편결제 사업자에 후불 결제(최대 30만원 한도) 허용에 따라 카드사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점도 불만이다. 카드사는 후불 결제가 여신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권의 불만 사항은 빅테크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가동에 앞서 은 위원장은 12일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협회장들을 만나 업종별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편리한 서비스, 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 등 소비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시각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지성규(왼쪽 다섯 번째) 하나은행장이 7일 을지로 본점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로 선정된 손님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은행

## 고객 불편을 아이디어로... 하나銀 '소비자 경영' 가속

환전 지갑·스마트창구 등  
손님행복찾 아이디어 시상식

하나은행이 고객 불편사항을 모아 서비스 개선 등 경영환경 개선에 활용한다.

하나은행은 7일 오후 을지로 본점에서 '손님행복위원회 우수 아이디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 관점에서 바라 본 신상품 서비스와 디지털, 외환거래 등의 편리성 증대를 위한 불편사항을 제거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경영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를 확립코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8년에 출범한 하나금융그룹 손님불편제거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해 올해로 3년째다.

올해는 지난 6월 30일까지 손님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총 1907건의 의견 가운데 총 323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하나은행은 해당 의견에 대해 개선방안을 경영 전반에 즉시 반영했다.

특히 △환전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한 '환전 지갑' △영업점 방문순님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신청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스마트창구 플러스' 서비스 시행 △약정거래에 생체인증 서비스를 적용한 '하나원큐 신용대출' 등을 통해 손님 맞춤형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개선해 반영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손님행복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나은행의 최우선 과제인 '디지털 혁신'과 '손님 우선'에 대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며 "고객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찾고 고민해 새로운 가치를 경험하게 해 드리는 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 확립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최된 시상식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손님 7명을 초청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8월호 발매

COVER STORY 여권 없이 훌훌 지구 한 바퀴

- PART1. 한국 속 지구촌 1박으로 단박에 즐기는 세계 문화 체험
- PART2. 한국에서 즐기는 아름다운 여권 여행 저비용 고효율로 누리는 '소확행'
- PART3. 해외 음식 맛집 기행 서울 지하철 타고 탐험
- PART4. 영화 보며 해외여행 미드나잇 인 파리 '여기 머물면 여기가 천자가 돼요'
- PART5. 외국 갑성 국내 숙박 한국에서 누리는 미국적인 하룻밤
- PART6. 온택트로 떠나는 '집콕 해외여행' 내 방에서 즐기는 '원데이 랜선투어'



### 선라보가 만난 사람



또 하나의 한류, 민화가 살 속에 스며든 새삼을 꿈꾸다  
이복자 교장의 재인생은 언화 사랑



'집콕여행, 고생은 안고도 모르고 그저 살아있어요'  
트로트계의 BTS, 진성이 말하는 인생론



'인사는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직업을 통해 평화를 꿈꾸는 유영호 작가



### 김혜영의 느린 여행 바다 위의 파라다이스 외도 보타니아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자, 이국적인 국내 여행지가 주목받고 있다. 바다 위의 식물 낙원이라 불리는 경남 거제도의 외도 보타니아도 그중 한 곳이다. 사실 외도 보타니아의 인기는 새삼스럽지 않다. 1995년 개항 이래 누적 방문객 수가 2000만 명이 넘는 거제 대표 명소가 아니겠는가. 나만 해도 그 방문객 수에 적잖이 놀랐다. 이번 방문 때는 비가 왔다. 비 오는 날의 섬 여행도 꽤 낭만적이겠다.

### 시니어 밥상

휴머이드 사찰음식+노화 예방을 위한 보랏빛 에너지 충전

### 투자 고수와 논자

김원섭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센터장 은퇴 후 노후설계, 'ELS' 담아라

### 생생 부동산 현장 하남연장선 타고 서울생활권 입성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옆에 위치해 제2의 강남이라 불리는 경기도 하남시, 이미 개발된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유림신도시, 그리고 교산자구를 제외하면 남은 지역은 풍산동 정도다. 하남시의 마지막 투자처라 할 수 있는 풍산동의 지역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봤다.

## "온라인 보험마케팅, 규제기준 명확히 해야"

보험연구원 "EU, 판매행위로 명시... 국내에 맞는 가이드라인 필요"

인터넷 비교사이트, 플랫폼 등 온라인 보험마케팅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양승현 보험연구원장은 "EU의 온라인 보험판매 규제" 보고서에서 "온라인 보험마케팅을 보험 모집으로 규제할지, 보험 광고, 보험상품 비교·공시 등 별도의 범주와 체계를 통해 규제할지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접근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비교사이트, 플랫폼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비교사이트를 통한 보험판매가 일찍이 발달한 유럽연합(EU)은 그동안 개별 당사국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보험마케팅이 규제대상인 보험판매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보험 모집 규제 범위에 대한 규제 불명확성 해결을 위해 2018년 시행된 보험상품판매지침에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정보 제공 내지 가격 등 비교행위가 '보험판매'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상품판매지침은 규제대상인 보험판매를 정의하면서,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 내지 비교사이트 운영이 포함

된다고 명확히 한 것이다.

보험판매는 고객이 직·간접적으로 웹사이트 등 매체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통해 △고객이 선택한 범주에 따라 하나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험계약의 가격, 상품비교, 보험료 할인 등 보험상품 순위를 집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보험판매인에게 단순히 가장 고객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장 고객에게 보험상품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공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추가로 조력하는 바가 없다면 보험판매로 보지 않는다.

보험연구원은 "EU내에서는 이를 통해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보험판매 규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며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변화·발전되는 온라인 보험마케팅 행위가 이러한 기준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고 규제될지는 향후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보험마케팅을 어떠한 범위에서 보험 모집으로 규제할지, 혹은 보험 광고 및 보험상품 비교·공시 등 별도의 범주와 체계를 통해 규제할지 여부는 각국의 법체계 및 특수성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은평 기자 pepe@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회계사**  
"복잡한 회계 업무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무관리사**  
"사업에선 자금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죠"

**세무사**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

**헤드헌터**  
"어떤 인재를 원하시나요?"

**멘토**  
"시장 트렌드, 놓치지 마세요"

**사업, 참 어렵죠?  
지금 신한 SOL Biz  
다운받으면,  
모든 고민 걱정 끝!**

사업자를 위한 편리하고 쉬운 금융거래부터  
세무, 회계, 구인, 사업 노하우까지 -

든든한 기업 बैं킹 앱  
신한 SOL Biz

지금 '신한 SOL Biz'  
다운로드 받으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 | GET IT ON Google Play

개인사업자부터 법인고객까지 - 성공 지원 기업뱅킹앱

신한 SOL Biz

모든 은행 계좌 및 카드를 모아보는  
통합 자금 관리

스마트한 경영을 위한  
회계 관리

간편한 절차로 세금 신고가 가능한  
세무 지원

전문 인력 구인을 위한  
인력 채용

비즈니스 정보 수집을 위한  
커뮤니티

SOL Biz

\*신한 SOL Biz는 전은행계좌 및 카드 관리 / 세무지원 / 구인서비스 / SOHO 커뮤니티 연계 등 SOHO / 중소기업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बैं킹 플랫폼입니다

EVENT 1 SOL Biz 금융 상품 신규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

해당 상품: 슌편한 사업자 대출 | 노란우산 공제 | 스피드업 보증서 대출 | 사업자 성공기원 적금 (10만 원 이상)  
경품: 1등 LG그램 노트북 | 2등 갤럭시 탭 | 3등 갤럭시 버즈플러스 | 4등 신세계 상품권 | 5등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증정

EVENT 2 SOL Biz 로그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선착순 1,000명에게 모바일 쿠폰 발송

\*본 이벤트는 2020.09.10 MMS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됩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0-10962-1호 (2020.07.31~2020.12.31) \*당첨자는 2020년 9월 10일 이후 공지된 경로로 일괄 안내됩니다. (단, 공지일자는 은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품의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고, 경품은 사정에 따라 다른 경품으로 바뀔 수 있으며, 경품 소진 시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5만원 초과 경품에 대한 재세공금 22%는 당행에서 부담하며, 당첨된 경품 상당금액이 고객님의 연간 기타 소득으로 한도없이 3백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될 수 있습니다. \*3만원 초과 경품제공 전에 대하여는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은행법상 계산상 이익제공 보고 의무에 따라 보고됩니다. 단 금액형 상품권 (ex. 백화점 상품권, 편의점 금액권), 현금, 포인트는 금액 상한없이 보고됩니다. \*부정행위 방법으로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고객은 추첨 시 제외됩니다. \*당첨자에게 경품 지급을 위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 기일 시 당행이 취소됩니다. \*연락처가 부정확하여 본인확인, 경품배송 및 재세공금 처리가 불가한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대상은 SOL Biz 오온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 SOL Biz 참조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 “갤노트20, 언택트 마케팅의 새 지평 열었다”

삼성전자, 신제품 경험 ‘갤럭시 팬파티’ 21일 온라인 진행  
전문가와 1대1 쌍방향 영상 소통 ‘마이 갤럭시 스튜디오’  
갤노트20 온라인 언택트 성료... 역대 최대 5600만 명 시청

삼성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언택트’ 시대를 맞아 온라인 마케팅의 롤 모델(role model·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공개하는 ‘갤럭시 언택트’ 행사를 온라인 생중계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데 이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조한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소비자의 모바일 신제품 경험을 위해 매년 진행해 오던 ‘갤럭시 팬파티’를 오는 21일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한다.

갤럭시 팬파티는 소비자가 신형 스마트폰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행사다. 삼성전자는 2018년 갤럭시S9 출시 때부터 갤럭시 팬파티를 진행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진행을 못 했다가 하반기 ‘갤럭시노트20’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온

라인으로 처음 진행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20 등 5개 신제품을 공개한 언택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온라인 생중계를 기본 토대로, 제품을 시연하고 설명하는 녹화본이 영상 중간에 삽입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온라인 이벤트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언택트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600만 명이 시청했다.

삼성전자 뉴스를 통한 홍보도 적극적이다. 유튜브들의 인기 콘텐츠였던 언박싱(Un-boxing) 영상을 삼성전자가 직접 공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언박싱 영상을 통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포장 상자에 들어있는 충전 어댑터, 번들 이어폰, 데이터 케이블, 사용 설명서, 여분의 이어팁까지 모두 보여주며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영상 길이도 1분 내외로 소비자가 지루해하지 않고 가



‘갤럭시 노트20 스튜디오’에서 한 시민이 ‘S펜’으로 나만의 감성이 담긴 문장을 써보는 ‘마음한줄’에 참여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갤럭시 노트20 스튜디오’ 전경.



‘갤럭시 노트20 스튜디오’에서 한 시민이 ‘S펜’으로 나만의 감성이 담긴 문장을 써보는 ‘마음한줄’에 참여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갤럭시 노트20 스튜디오’ 전경.

볍게 접근할 수 있게 배려했다. 또 갤럭시 노트20과 전작 ‘갤럭시노트10플러스’와 비교하는 글을 뉴스로 올리며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대한 설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시작한 갤럭시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 ‘갤럭시 스튜디오’ 역시 안심 방역·언택트 체험 마케팅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8일 운영을 시작한 갤럭시 스튜디오

에서는 철저한 방역 시스템은 물론 그동안 오프라인 공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대면 체험 플랫폼을 구현했다.

특히 이번 갤럭시 스튜디오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객과 쌍방향 소통을 지원하는 옴니 채널 서비스인 ‘마이 갤럭시 스튜디오’ 플랫폼이 새롭게 도입됐다.

‘마이 갤럭시 스튜디오’는 카카오톡에서

‘마이 갤럭시 스튜디오’ 채널을 추가해 고객과 체험 전문가가 일대일로 영상을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제품의 다양한 기능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여파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가 집에 가져가 제품을 써보는 ‘갤럭시 투고’ 서비스도 최대 3일로 확대 운영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 현산-금호 대면협상... 극적타결 이뤄낼까

### 아시아나 M&A 중대고비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채권단이 제시한 계약 이행 기한(1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9일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금호산업의 대면협상 제의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인수합병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호산업이 인수상황 재점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부터라도 인수인과 매도인이 만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지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금호산업의 대면 협의 제의를 수락했다.

현산은 “이를 위해 양사 대표이사 간의 재실사를 위한 대면 협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이 제안한 대면 협상을 대표이사간 대면협상으로 보다 구체화해 역제안한 셈이다. 협상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 HDC현산, 금호산업 제안 수락

#### 현산 “재실사 협의 적극 나서야”

#### 금호·채권단은 “계약이행” 촉구 양측 입장 팽팽해 난항 예상

금호산업의 제안을 최대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현산은 “인수거래를 종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금호산업이 당사의 제안을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와 도약을 위해 현산의 인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금호산업이 재실사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우여곡절 끝에 대면협회가 재개될 전망이다. 현산의 ‘재실사 요구’와 금호산업채권의 ‘계약이행 촉구’ 주장이 워낙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오는 11일을 계약 이행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12일부터는 금호산업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러시아를 끝으로 해외 기업결합신고가 완료돼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 요건이 충족됐다는 것이 금호산업과 채권단의 주장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2분기 깜짝 실적이 매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151억 원을 기록해 6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영업비용 절감과 더불어 유류 여객기를 활용해 화물 운송에 집중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화물부문 매출을 95%나 높인 덕이다. 그동안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망설인 것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가 주된 이유였던 만큼 이번 호실적이 현산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영록 기자 syr@

## 삼성전자, 인도 휴대폰 시장 1위 탈환

### 2Q 점유율 24%... 샤오미 제쳐 스마트폰 점유율도 선두 맹추격

삼성전자가 2분기 인도 시장에서 전체 휴대폰 시장 1위를 탈환했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크게 오르며 1위 샤오미를 맹추격 중이다.

9일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6월 2분기 인도 휴대폰 전체 시장에서 24% 점유율을 기록하며 2분기 만에 샤오미를 넘어 1위를 되찾았다.

샤오미는 작년 4분기 첫 인도 시장 휴대폰 1위(21.1%)가 됐고, 1분기 18.3%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으나, 2분기만에 삼성전자에 1위를 내줬다. 비보는 그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인도 휴대폰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제

외한 피쳐폰 시장이 아직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4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급상승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 26.3%로 전분기 15.6% 대비 10%포인트 이상 점유율을 높였다. 샤오미와 비보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각각 29.4%와 17.5%로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IDC는 “삼성전자 M21은 2분기 인도에서 가장 잘 팔린 상위 5개 모델 중 하나였다”며 “온라인 전용 M시리즈가 오프라인 채널에도 출시되면서 점유율이 올랐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시장 상위 5위 업체(샤오미·삼성·비보·리얼미·오포)와 피쳐폰 시장 상위 5위 업체(삼성·지오·아이텔·라바·노키아) 중 둘 다 이름을 올리는 곳은 삼성전자 밖에 없다. 송영록 기자 syr@

### “새 투자자 나타나면 자사 지분 50% 아래로”

## 마힌드라, 쌍용차 지분 매각 가능성 재확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자동차에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면 자사의 지분을 50% 아래로 낮추게 될 것이라 밝혔다. 대주주 지위를 포기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파완 고엔카 쌍용차 이사회 의장은 7일(현지시간) 인도 뭘바이 마힌드라&마힌드라 본사에서 열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쌍용차가 투자자를 찾으면 마힌드라의 지분이 50% 미만인 될 수 있다”며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지분을 50% 아래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새로운 투자자가 확보되면 마힌드라가 소유한 지분을 넘겨며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사 지분을 유지하며 투자금을 유지하는 방법 대신, 지분율을 낮추는 선택지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2011년 5225억 원을 투자해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는 현재 지분 74.65%를 갖고 있다.

아니시 사 부사장은 이날 콘퍼런스 콜에

서 쌍용차에 마힌드라 차원의 추가 자금 투입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쌍용차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더는 투자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며 “현재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성공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완성차 업체가 비용 절감에 나서는 상황인 만큼, 현지점에 쌍용차를 인수할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쌍용차가 대주주를 조건으로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자금 역시 투자자 확보에 걸림돌이다. 쌍용차는 마힌드라가 지분 5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JP모건,뱅크 오브 아메리카, BNP파리바 등에서 총 2068억 원 규모의 자금을 빌렸다. 만약,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외국계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쌍용차는 올해 2분기 12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14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유창욱 기자 woogi@

## LG, 메이필드호텔서 배송로봇 시범 서비스

### 건물 안팎 오가며 음식 서빙

LG전자가 로봇 사업을 다각화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호텔 로봇 솔루션을 선보였다.

LG전자는 최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 서울에서 실외배송로봇(사진)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달 중순까지 총 2대를 운영한다.

실외배송로봇은 메이필드호텔 서울이 진행하는 여름 이벤트인 ‘썸머앳더테라스(Summer At the Terrace)’를 위해 호텔 건물 안팎을 오가며 고객에게 음식 서빙 역할을 수행한다.

고객이 야외테라스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면 로봇은 주방에서 완성된 요리를 고객에게 있는 테이블까지 배송한다. 또 고객이

식사를 마치고 그릇들이 선반에 채워지면 퇴식장소로 이동한다.

LG전자는 최근까지 안내로봇, 서버봇 등 실내에서 수행하는 로봇들을 선보여 왔지만 실외배송로봇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텔을 포함한 대학 캠퍼스, 아파트 단지, 놀이공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실외배송로봇을 검증하며 적용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LG전자와 메이필드호텔 서울은 내달 중순 호텔 뷔페에서 생맥주를 따르는 로봇을 도입할 계획이다. 직원이 시스템에 맥주 주문을 입력하면 로봇은 주문된 맥주 종류를 파악해 컵을 잡고 맥주 디스펜서로 옮긴다. 이어 맥주가 담긴 컵을 다시 잡아 서빙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직원은 로봇이 맥주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양사는 로봇 서비스를 통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로봇이 대신하고 직원들은 보다 세심하게 고객을 응대하는 등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객들이 호텔에서 느끼는 재미를 더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전자는 호텔에서 실외배송, 식음료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호텔 로봇 솔루션을 제시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영록 기자 syr@

〈SK그룹 회장〉

# “존재 이유 뭐냐” 화두 던진 최태원

‘극한직업’ 패러디한 ‘이천포럼’ 홍보 영상서 ‘딥체인지’ 공들이기  
18~20일 온라인 개최… ‘코로나 시대’ SK 생존 전략 제시할 듯

SK그룹이 임직원에게 ‘딥체인지(Deep Change·근원적 변화)’의 DNA를 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SK그룹에 따르면 SK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로 서린빌딩에서는 ‘극한포럼’이라는 제목의 이천포럼 홍보 영상이 엘레베이터 등 직원들이 모이는 곳에서 송출되고 있다.

영화 ‘극한직업’을 패러디한 이 영상은 “이천포럼은 ‘최태원 클라쓰’가 다했다”라고 시작한다. 또한, “니들 존재 이유는 뭐냐”라는 의문과 함께 딥체인지를 위한 기초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천포럼에서 이해답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하자는 내용이 이어진다. 이천포럼은 세계 경제, 산업, 기술, 과학, 지적학 분야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정보를 공유하고 SK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다. 최태원(사진) SK 회장이 직원들의 사업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 2017년 내부용 이천포럼을 만들었고 이후 논의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도록 2018년부터는 이천서브포럼도 진행하고 있다.

SK그룹은 올해 이천포럼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창궐로 기업을 둘러싼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자 생존을 위한 혁신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 지적학적 변화 등 큰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임직원의 포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최 회장 역시 직접 이천서브포럼 홍보영상에 출연하며 포럼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기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를 패러디한 ‘최태원 클라쓰’라는 포럼 홍보영상에 등장해 개그는 물론 삼행시 등도 진행했다. 최 회장은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삼행시를 지어보려던 최 회장이 ‘일’이라고 혼잣말을 하는데 옆에선 숫자 게임인 줄 알고 ‘2! 3!’이라고 외치며 벌떡 일어선다.

이처럼 그룹 총수가 직접 포럼에 대한 홍보에 나선 만큼 올해 이천포럼에서 최 회장이 던질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천포럼에서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디지털 기술 등 다방면에서 딥 체인지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존 전략에 대한 통찰력 있는 화두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린 이천포럼에서도 최 회장은 “격변하는 시기에 SK 구성원들이 그룹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면 비즈니스 관점을 크게 넓혀야 한다”며 다양한 경영화두를 던진 바 있다.

지난해에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혁신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면 SK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가치 창출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LG전자 ‘英 FTSE’ 소비자가전 최고점

‘FTSE4Good’ 6년 연속 편입  
환경·사회 등 소부문 평점 높아

LG전자는 영국 FTSE(Financial Times Security Exchange)가 발표한 FTSE4Good 지수에 6년 연속 편입됐다고 9일 밝혔다.

FTSE4Good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런던증권거래소(LSE)가 공동으로 소유한 FTSE인터내셔널이 만든 사회적 책임투자지수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평가한다.

LG전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소비자 가전(Consumer Electronics) 분야에서는 최고점을 획득했다.

LG전자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고효율 제품 개발, 폐자원 활용 등을 통해 탄소 중립 및 순환경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탄소중립 2030(Zero Carbon 2030)’을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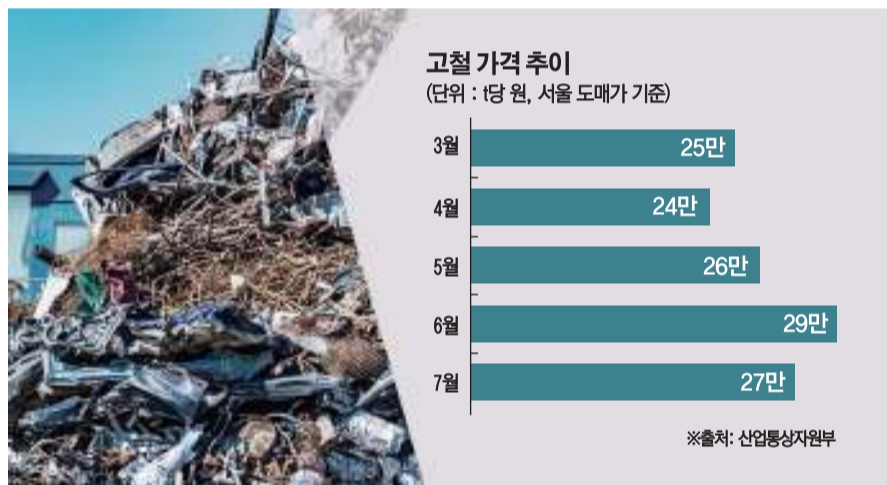
했다. 2030년까지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2017년 대비 50%로 줄이는 동시에 외부에서 탄소 감축활동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품 생산단계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는 150만 톤CO2e(이산화탄소 환산량,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으로 지난 2017년 대비 약 22% 줄였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LG전자 자원봉사자의 날,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인 LG소셜캠퍼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LG전자는 2006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결과를 비롯해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고철 가격 다시 내려가는데... 철광석은 고공행진

## 원자재에 웃고 우는 철강업계

동국제강, 2Q 영업익 766억 예상  
포스코는 1085억 손실... 첫 적자  
업계 리스크 줄이기 체질 개선 나서

철강 원자재 가격이 제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철강업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악재에도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 고철(철스크랩)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미소를 짓고 있다. 반면 예년보다 톤(t)당 최대 40달러 높은 철광석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부진에 빠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 제품의 원자재인 고철, 철광석 가격은 최근 정반대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동안 오름세를 보였던 고철 가격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철 가격(서울 도매가 기준)은 t당 27만 원이다. 6월(29만 원)과 비교했을 때 2만 원 하락했다.

고철 가격은 4월(24만 원) 저점을 찍은 이후 잠깐 상승세를 보였지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고철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고철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들어 수요 회복 움직임은 있지만, 지난해처럼 30만 원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

은 적다고 업계는 예상했다.

철광석 가격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예년보다 20~30달러 비싼 t당 90달러대를 기록하더니 이달에는 120달러대를 찍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생산지역인 브라질, 호주 등에서 조업 차질이 발생한 데 따른 영향이다.

이에 고철을 전기로에 녹여 제품을 생산하는 동국제강은 올해 견조한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2분기에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766억 원)을 달성했을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하고 있다.

철광석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이미 타격을 받았다.

포스코는 지난 2분기(별도기준) 영업손실 1085억 원을 기록했다. 2000년 분기 실적 공시 이래 사상 첫 적자이다. 고철보다 철광석 비중이 높은 현대제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94% 하락한 140억 원에 머물렀다.

철강업체들은 원자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특히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원가절감 활동인 ‘코스트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일련의 활동을 통해 절약된 금액은 1752억 원이다.

현대제철은 올해 4월부터 혁신제도 ‘HIT’를 시행했다. HIT에는 설비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요소를 발굴하는 설비 강건화 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 동국제강 또한 원가절감을 위해 생산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휴온스

엘루비

###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인정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중 프로바이오틱스 기준, 2020년 4월

##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원료 L.acidophilus YT1의 인체적용시험결과

- 여성 갱년기 상태지수(KI) 11가지 총점 개선
- 갱년기 삶의 질 평가 지수(MENQOL) 4가지 항목 개선 확인

소비자 상담실 | 080-447-4700  
판매사 (주)휴온스 | 제조사 (주)알피바이오

# “사회적기업이 키운 아이돌, 희망을 노래해요”

## 인터뷰

### 이철우 옆엔터테인먼트 대표

‘아이돌’과 ‘사회적기업’, 도무지 만나지 않을 것만 같은 두 단어가 만났다. 2018년 겨울 데뷔한 4인조 그룹 ‘플로어스’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곡을 노래하는 등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는다. 플로어스가 속한 옆엔터테인먼트는 연예기획사 최초의 사회적기업이다.

SK 사회공헌재단 출신 국내 첫 엔터 분야 사회적기업 창립  
소속 걸그룹 ‘플로어스’ 학교폭력 등 메시지 강한 노래 선배  
“청소년에게 선한 영향력,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보탬 되길”

이철우(41) 옆엔터테인먼트 대표는 SK 그룹 사회공헌재단인 행복나눔재단 출신으로 2013년 창업에 뛰어들었다. 문화예술 후원기관인 한국메세나협회에서의 인턴 경험과 행복나눔재단, 이후 광고대행사에서 경력이 합쳐져 국내 최초 엔터테인먼트 분야 사회적기업을 세웠다. 5월 이 대표를 서울 정릉에서 만나 연예기획사로 거듭나게 된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옆엔터테인먼트가 처음부터 아이돌에 주목한 건 아니었다. 이 대표는 창업 초반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포함해 문화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일에 힘썼다. 괄목할 성과도 냈다. 이 씨의 데뷔작이었던 다큐멘터리 영화 ‘사라질 것들, 살아갈 곳들’은 2016년 인디다큐페스티벌에도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다큐 연출·제작이 쉽게 수익으로 연결되진 않았다.

이 대표는 “비즈니스와 이어지는 콘텐츠

를 고민하다가 연예기획사를 생각하게 됐다”며 “아이돌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도 마음을 끌었다”고 엔터 사업에 몸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2016년 봄부터 ‘플로어스’를 기획했지만 부모의 반대, 몸과 마음이 아파서 중간에 하차한 팀원들 등 다양한 이유로 팀은 만들어졌다가 다시 깨지곤 했다. 200명이 넘는 오디션을 보면서 이 대표는 적게는 1시간, 많게는 며칠에 걸쳐 면접을 봤다. 여타 기획사들이 5분 남짓한 시간 동안 짧게 인물을 평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는 “춤, 노래,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였다”며 “지향점이 같아야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 12일 쇼케이스가 열린 날, 이 대표는 창업 6년간의 피로가 씻기는 기분이었다고 털어놨다. 무엇보다 긴 연습 기간을 버틴 멤버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



이철우 옆엔터테인먼트 대표.

람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그는 “멤버 중 2명은 중학생 때부터 다른 기획사에서도 연습한 적이 있는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곡질이 많았다”며 “데뷔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했던 상황을 이겨내 준 데 대한 감사함도 느꼈다”고 했다.

플로어스만의 경쟁력은 사회적기업이 배출한 그룹답게 메시지를 강조한 노래를 한다는 점이다. 2018년 12월 발매한 ‘플로어[스]’ 앨범이 대표적이다. 이 앨범에 담긴 노래에는 학교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녹아 있다. 어릴 적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멤버 수화가 직접 작사에 참여했다. 내달 초에는 ‘기억’을 주제로 한 새 앨범이 나올 예정이다.

옆엔터테인먼트는 아직 외부 투자를 유



플로어스 멤버 수화(왼쪽부터), 진현, 진혜정, 지송.

사진제공 옆엔터테인먼트

한 적이 없다. 사회적기업으로서 국비나 시비 지원은 받았지만,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진 않았다. 아이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외부 투자자의 입김에 좌우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옆엔터도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올해는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 대표는 아이돌산업에 관해 “흑자들은 레드오션이라고 단정하지만, 오히려 해외 시장까지 고려하면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플로어스도 데뷔 초 폴란드에서 100명이 넘는 팬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팬클럽을 만들었다”며 “K팝의 수혜를 본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꿈꾸는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아이돌을 선망하는 청소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그는 “청소년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게 부모님 다음 아이돌일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아이돌 산업의 부정적인 면을 줄이는 것이다.

그는 “더는 엔터 업계 사건 사고를 신문 사회면에서 보고 싶지 않다”며 “엔터 산업을 둘러싼 상업성 등 고정관념도 탈피하고 싶다”고 했다. 부모 반대로 연습생을 잃으면서 더 절감한 부분이다. 그는 “옆이 배출한 아이돌이 선례가 돼 고정관념을 깨는 역할을 작게나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이진민 기자 aaaa3469@



올레 tv, 보는 뮤직 서비스 ‘MU:Z’ 출시  
KT가 뮤직비디오, 오디오 채널, 유튜브 인기 음악 콘텐츠, 노래방 앱 등 음악 관련 서비스를 총망라해 올레 tv ‘보는 뮤직’ 서비스 ‘MU:Z(뮤즈)’를 10일 출시한다. ‘MU:Z’는 올레 tv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 특화 콘텐츠를 한데 모아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화질 뮤직비디오 1만1100여 편 무료 △무관중 언택트 콘서트 생중계 △IPTV 독점 아이돌 오리지널 콘텐츠 500여 편 등 MZ세대를 겨냥한 다채로운 음악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진제공 KT

## 이성당·진주회관 등 80곳 ‘백년가게’ 선정

### 전국 485곳으로 늘어

이성당, 진주회관 등 소상공인 업체 80곳이 ‘백년가게’로 선정됐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올해 백년가게를 2차로 80곳 선정해 전국의 백년가게가 모두 485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군산의 ‘이성당’, 서울의 ‘진주회관’, 부산의 ‘내호냉면’ 등 음식점업이 43개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떡방앗간, 자동차공업사, 제면소, 호스텔 등이 선정되면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백년가게’가 발굴됐다.

올해 2월 처음 도입된 국민추천제로 30개 업체가 새로 선정돼 국민이 추천해 발굴된 ‘백년가게’는 총 49개로 늘었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소상공

인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업력 30년 이상 가게(소상공인 등) 중 경영자의 혁신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영업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백년가게’를 선정하고 있다. 백년가게로 선정되면 전문가 컨설팅 등 역량 강화, 현판식 개최, 국내 유명 O2O 플랫폼(식신)과 언론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달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백년가게 방문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백년가게’ 방문자가 방문 사진을 웹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컴퓨터, 온누리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웹페이지는 백년가게 공식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블로그, 식신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알뜰폰으로 5G 저렴하게 이용하세요

### 과기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정부가 알뜰폰 시장 확대를 위해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망을 개편한다. 이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5G 서비스를 의무 제공하고 음성과 데이터 비용은 20% 인하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도입 이후 이동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2020년 6월 현재 734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와 알뜰폰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 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개별 사업자와의 20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 5G 서비스 도매제공 의무화 음성·데이터 비용 20% 인하 제휴 할인카드도 출시 계획

통해 알뜰폰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을 파악했다. 그 결과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생태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정부는 알뜰폰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 제공하도록 올해 11월 내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도매대가를 음성과 데이터 각각 지난해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도 낮춘다. 아울러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 원에서 최대 1만5000 원 이상

할인혜택을 받도록 했다.

알뜰폰 업계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단말기 공급 기반도 늘린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여기에 기존에는 이동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9월부터 자급제 단말기와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를 ‘알뜰폰허브’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알뜰폰 접근성도 쉽게 개편한다. 이용자들이 알뜰폰허브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와 단말기, 전용할인카드를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 앱 인증 등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성준 기자 tiatio@

## 공짜폰·페이백... 휴대폰 사기피해 주의보

### 방통위, 모니터링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갤럭시 노트20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에 맞춰 휴대전화 사기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이상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도 벌일 방침이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는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8월 7일~8월 13일)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피해사례를 보면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피해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 미이행,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후 약속 미이행,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유도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통신 약정(24개월) 종료 후 단말기(48개월 약정) 잔여 대금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편취하는 일도 잦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이동전화 사기피해 지원센터’에 신고접수와 상담을 진행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이재훈 기자 yes@

# 여름 마케팅 못한 맥주... 속타는 vs 미소민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무더위와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3분기는 연중 맥주 판매량이 가장 높은 시기다. 맥주업계는 통상 이 시기에 여름 축제 후원 등 야외 판촉 행사를 적극적으로 벌여 '매출 증대'와 '인지도 제고'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나선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판촉 활동이 불가능한 올해의 경우 업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양대 라이벌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의 속내는 사뭇 다르다. '테라'를 앞세운 하이트진로의 반격에 점유율 하락이 진행 중인 오비맥주는 반등 계기를 잡을 수 없어 속이 탄다. 반면 하이트진로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매출은 오르고 있어 속으로 미소짓고 있다.

오비맥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전히 국내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출시한 '테라'를

발판 삼아 업계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 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테라 출시 전 20% 후반대였던 하이트진로의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은 올해 말 최대 4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오비맥주는 새로운 디자인과 비대면 마케팅 등의 판매 촉진을 통해 하이트진로 저지에 나서고 있다.

오비맥주는 최근 카스 디자인을 리뉴얼했다. 카스 고유의 신선한 맛과 향에 대한 자신감을 'Cold Brewed(콜드 브루드)'로 표현한 게 이번 디자인의 특징이다. '콜드 브루드'는 카스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 저온에서의 숙성과정을 거쳐 카스의 신선함을 만드는 과정을 뜻한다.

오비맥주는 식당과 업소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19에 대면 판촉 불가능  
점유율 점점 떨어지는 오비맥주  
'카스' 리뉴얼에도 홍보 못해

'테라' 질주 발판삼은 하이트진로  
6월 매출 2배... 판관비 감소는 덤

온택트 뮤직 페스티벌도 개최했다. 지난 달에는 온택트 뮤직 페스티벌 '카스 블루 플레이그라운드 커넥트 2.0(Cass Blue Playground Connect 2.0, 이하 CBP)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카스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된 이 공연에는 한국,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8만 명이 이상이 동시에 접속했다. 조회수는 83만 건을 넘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특성상 온라인 마케팅

이 오프라인보다는 파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맥주는 시음 등 고객의 '브랜드 경험'이 중요한 제품인데 온라인에서는 제품 경험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하이트진로는 최소한의 마케팅을 실시하며 정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의 최근 맥주 마케팅 활동은 지난달 선보인 테라 여름 TV광고가 전부다.

이는 특별한 홍보 없이도 제품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출시된 하이트진로 테라는 올해 5월까지 누적 판매량 8억6000만 병(330ml 기준)을 기록했다. 올해 6월 테라 판매량은 6000만 병(500ml 병 기준)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6월 판매된 2600만 병(500ml 병 기준)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판관비 감소 효과는 덤이다. 지난해와 2018년 3분기 하이트진로는 '광고전선비+판매촉진비'로 각각 394억 원, 442억 원을 썼다. 회사 관계자는 "성수기 마케팅을 못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실적도 낙관적으로 점쳐진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분기 매출액 5903억 원, 영업이익 43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2.6%, 313.2% 증가한 수치다.

이정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맥주와 소주 시장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하이트진로 맥주와 소주 판매량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1분기부터 이어진 실적 개선세가 연중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비 올때 역시 국물”... 밀키트, 잘나가네~

유통업계가 밀키트 수요 잡기에 나선다.

밀키트는 길어지는 비 소식에 외식 수요를 대체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자리잡은 캠핑 문화 덕에 효자 아이템으로 주목받으며 소비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9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밀키트 매출은 8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 오는 날씨에 먹기 좋은 국물 요리 밀키트의 매출 비중은 68%에 달했다. 이마트가 지난해부터 차례로 출시해 올해 4월 라인업을 갖춘 직화용기 밀키트 6종은 캠핑 대중화 트렌드에 힘입어 매달 매출이 늘고 있다. 지난달 매출은 4월보다 8.3% 증가했고, 대표 상품인 '어메이징 부대찌개'와 '즉석떡볶이'는 각각 월평균 5만 3000여 개, 1만1000여 개씩 판매됐다. SSG닷컴에서도 올해 1~7월 밀키트 관련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신장했다.

이에 유통업계는 길어지는 장마,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밀키트 수요를 잡기 위한 할인 행사를 이어간다. 이마트는 13일부터 19일까지 밀키트 인기 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피코크 초마 짬뽕, 맛이 차이나 짜장, 유노추보 우동, 원주식 장칼국수, 쉬림프 로제파스타, 피코크 도우름 까르보나라를 30% 할인 판매하고, 캠핑 수요를 고려해 어메이징 직화용기 간편식 상품도 특가에 준비했다. 이마트는 어메이징 와규소불고기, 어메이징 한돈뽕다귀감자탕, 어메이징 두끼떡볶이 3종을

이마트, 지난달 매출 83% 늘어  
초마짬뽕·장칼국수 등 30% 할인  
SSG닷컴 '새벽배송 맛집 기획'  
CU, 캠핑 간편식 시리즈 내놔



피코크 오랭식당 부대찌개. 사진제공 이마트

815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SSG닷컴은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새벽배송 맛집 소개' 기획전을 열고 오프라인 유명 맛집 밀키트 상품 12종을 한데 모아 전 상품 20% 할인에 나선다. 먼저 SSG닷컴 새벽배송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상품인 '요이벤' 도시락을 특가로 준비했다. 일본식 회덮밥 '치라시 사시미 덮밥 도시락'과 '장어구이 덮밥 도시락'은 각각 1만 5200원, '차슈 덮밥 도시락'은 6800원에 판매한다. 여름철에 어울리는 '후룩소바'는 95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베트남 음식 전문점 '하노이의 아침' 대표 메뉴인 '베트남 쌀국수', 숯불 돼지고기와 쌀국수가 어우러진 '분짜'는 20% 할인한 8720원에 판매한다. 미국

가정식 메뉴를 재현한 '사이바나'의 '빅 보이 칠리 스파게티'는 1만28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한식으로는 50년 전통 '부산 조방나지'의 '낙곱새(낙지+곱창+새우)'를 6390원에, 서울 잠실 맛집 '군산오징어'의 '오삼불고기'는 1만2720원에 선보인다. 이 밖에도 '한촌설렁탕', '육수당 수육국밥', '정다울 해물볶음짬뽕' 등 밀키트를 1만 원대 미만 가격으로 판매한다.

편의점 CU는 캠핑 수요를 겨냥한 캠핑 간편식 시리즈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CU가 출시한 캠핑 간편식은 초간편 눈꽃볶음밥, 모듬볶이, 콘치즈소시지 3종(각 4300원)으로, 이들 상품은 내용물을 알루미늄 용기에 담아 버너로 직접 가열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초간편 눈꽃볶음밥'은 캠핑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고려해 후식용 볶음밥 콘셉트로 출시된 상품이다. 눈꽃처럼 잘게 자른 모짜렐라 치즈를 감치볶음밥에 얹었다. 밥 양은 기존 도시락 대비 1.5배로 성인 2명이 먹을만하다.

캠핑장 인기 사이드 메뉴인 즉석떡볶이와 콘치즈도 간편식으로 출시된다. '초간편 모듬볶이'는 만두튀김, 김말이 등과 고추장 불고기를 매콤한 양념에 자작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초간편 콘치즈소시지'는 허브향 소시지, 스위트콘을 체다치즈와담아내 아이들 간식이나 어른 술안주로 즐기기에 좋다. 백미선 기자 only@



여행 대신 몰강스 장마가 길어지면서 실내 쇼핑몰에서 여름휴가를 즐기는 '몰강스(쇼핑몰과 바캉스의 합성어)족'이 늘고 있다. 몰강스족은 영화관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복합쇼핑몰을 많이 찾는다.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를 찾은 시민들이 주말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 유니폼 만들고 학용품 출시... 교복업계 새 먹거리 찾는다

엘리트, SK와이번스 유니폼 제작  
스쿨룩스, 디즈니 협업 학용품 내놔

국내 교복업계가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매년 줄고, 학교별로 입학해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학교주관 구매제' 시행 이후 교복 값이 하락하면서 국내 교복 시장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교복 시장 규모는 2014년 4000억 원에서 2018년 3000억 원대로 쪼그라들었다. 형지엘리트의 경우 2016년부터 적자를 벗어나지 못해 2017년 21억, 2018년 12억, 지난해 40억 원으로 매년 적자폭을 키우고 있다. 스마트학생복을 이끄는 스마트에프앤디도 최근 3년간 매출이 580억~600억 사이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국내 교복업계는 2015년 중국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사업 영토를 확장한 데 이어 새로운 먹거리로 눈을 돌리고 있다.

형지엘리트는 기업체 유니폼 등을 제작하는 B2B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스포츠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 형지엘리트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SK와이번스 프로야구단의 유니폼을 비롯해 점퍼, 모자 등 다수의 스포츠 상품과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B2B 사업 부문의 스포츠 브랜드 시장 진출 및 기존 B2B 시장과 학생복 시장의 시너지 창출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형지엘리트는 기존 삼성전자, 포스코, 에스오일 등 다수의 대기업에 유니폼을 제작·납품해오다 지난해부터 새마을금고, 신한 등 금융권 및 공기업 시장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스포츠 분야로 시장을 더 넓혔다.

스쿨룩스는 학생복 브랜드 사업만 전개하다 올해 처음으로 학용품 라인을 출시했다.〈사진〉 스쿨룩스는 교복업계 최초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 손잡고 데스크메트, 인덱스 스프링노트, L홀더, 접착메모지 등 학용품 라인의 디즈니 콜라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스쿨룩스는 업계 최초로 만든 자사 공식 홈페이지 내 온라인몰인 '마켓스쿨'을 통해 디즈니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백미선 기자 only@

## 가전·치킨·커피... 이랜드몰 14일까지 '반값위크'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이랜드몰이 5일간의 특가 퍼레이드를 펼친다.

이랜드몰은 10일부터 14일까지 '반값위크'를 열고 릴레이 반값, 릴레이 극한특가 등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매일 진행되는 릴레이 반값행사에서는 오전 10시에 인기 브랜드 '반값쿠폰'을 만나볼 수 있고, 오후 2시에는 선착순 '반값상품'에 도전할 수 있다.

우선 △10일 오전 10시에는 위닉스, LG 외 가전브랜드 50% 반값쿠폰·오후 2시 BHC 뿌링클+콜라 1.25 l 9500원에 판매

한다. △11일 오전 10시에는 김스클럽 50% 반값쿠폰과 오후 2시에는 롯데리아 빅볼 세트 3800원에 선보인다. △12일 오전 10시에는 모던하우스 50% 반값쿠폰을 준비했고, 오후 2시에는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R)를 2050원에 판매한다. △13일 오전 10시에는 미소 50% 반값쿠폰·오후 2시 애플 에어팟2(유선종전) 8만5450원에 선보이고, △14일 오전 10시에는 스파오 50% 반값쿠폰·오후 2시 푸레주르 생크림케이크 1호 1만 원을 마련했다. 릴레이 극한특가는 요일별 매일 새롭게

20개 상품을 특가로 선보이는 '극한력기 달'과 밤 9시, 10시, 11시 시간대별로 60분 동안 오픈되는 '심야타임세일'로 구성된다.

△10일에는 나이키/아디다스 여름의류 베스트 특가 100종 모음 최대 70% 할인전 △11일에는 애슬리/자연별곡 1인 맥주 무제한 세트/3인 가족세트 단독특가가 마련됐다. △12일에는 헤지스 의류 전 품목 추가 20% 할인전, △13일에는 에뛰드하우스 8월 신상품 포함 전 상품 할인전+20% 할인쿠폰 제공 기회가 주어진다. △14일에는 아이리버/애플/삼성 무선이어폰 단 하루 특가 최대 79% 할인전을 만나볼 수 있다. 백미선 기자 only@

# 코로나 이후 'BBIG' 돈 몰려... 시총 순위 '지각변동'

(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제조업→디지털' 新경제 전환  
친환경 車산업 투심도 높아져  
LG화학 3위로 5계단 '경총'  
현대모비스·포스코 순위 '뚝'

코스피200 구성종목 시가총액 순위 변동 현황

분류		2019년 순위	2020년 순위
업종	기업		
IT 하드웨어	삼성전자	1위	1위
IT 하드웨어	SK하이닉스	2위	2위
배터리	LG화학	8위	3위
인터넷	네이버	3위	4위
바이오·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	5위
바이오·제약	셀트리온	7위	6위
배터리	삼성SDI	18위	7위
자동차	현대차	5위	8위
인터넷	카카오	22위	9위
생활용품	LG생활건강	13위	10위

※출처: 한국거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은 전 세계 시총액 상위 기업의 서열을 뒤바꿨다. 제조업 중심의 구(舊) 경제에서 디지털 중심의 신(新) 경제로의 전환이 코로나를 계기로 빨라지면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몸값이 치솟았다. 또 코로나를 막아줄 해결사로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고, 환경오염 해결에 관한 관심 증가로 전기차 등 친환경 차 산업에 대한 투자심리도 높아졌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형 이후 국내 주식시장 시총액 서열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른바 'BBIG' (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주도주들이 나타나 기존 제조업 중심 시총 상위

기업들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특히 'BBIG7'의 일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바이오), LG화학·삼성SDI(배터리), 네이버·카카오(인터넷), 엔씨소프트(게임)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지난해 말 코스피200 시총 서열 10위에 들던 현대모비스, 포스코, 삼성물산 등은 아래로 밀려났고 카카오, 삼성SDI 등이 각각 13계단, 11계단 치고 올라와 시총 10위에 진입했다.

지난 7일 시총 서열 3위까지 올라선 LG화학은 부동의 2위인 SK하이닉스의 89.7% 수준으로 시총이 늘었다. 지난해 연말 시총 3위였던 네이버는 하이닉스 시총의 절반에 못 미치다 현재 88%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코스피200 전체 종목 중 BBIG7이 차지하는 시총 비중은 지난해 말 11.5%에서 현재 20.4%로 불었다. 이러한 주도주 쏠림은 글로벌 증시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중심지인 뉴욕도 마찬가지다. 미 증시 시총 1~4위인 'MAGA'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애플)는 지난 7일 기준 작년 말 대비 시총이 40.7% 불어난 6조1159억 달러(약 7272조 8754억 원)를 기록했다. 이 기간 S&P500 지수가 3.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성장세다. 세계 디지털 혁신의 선봉에 설 'IT 공룡'들이 코로나 국면서 차별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기대 때문이다.

특히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끌며 지난달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자동차기업 시총 1위에 올라섰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130여 년간 내연기관에 머물다가 전기차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일본에서는 스마트팩토리·제약·게임 기업의 시총 순위가 높아졌다. 제약회사인 주가이제약과 다케다약품공업은 작년 말 들지 못했던 시총 10위권(토픽스 기준)에 진입했다. 스마트 팩토리 기업인 키엔스는 언택트(Untac·비대면) 수혜 종목으로 부각되며 지난해 말 6위서 4위로 올라섰다. 게임을 판매하는 소니는 이 기간 5위서 3위가 됐다.

'원자재의 나라' 캐나다는 시장 내 지형 변화가 극적이다. 지난해 말까지 시총 순위 10위였던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 쇼피파이가 로열뱅크 오브 캐나다를 단숨에 제치고 시총 1등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금융 및 오일 메이저 기업이 포진한 영국은 독보적인 시총 1위였던 HSBC가 3위로 하락했다. 그 자리를 코로나 백신 개발 선두주

자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올라섰고, 2위 또한 제약업체인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 차지했다. 또 독일도 전통적인 하드웨어 기업은 후퇴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 강자인 SAP가 시총 1등 자리를 굳히는 추세다.

증권가에서는 코로나19 충격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켰다고 분석한다. 이로 인해 산업 구조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고, 시장은 이를 미리 앞서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메리츠증권 이진우 연구원은 "경기침체와 같은 산업 구조의 변화에 직면했을 경우 기술 침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된다"며 "경제 충격이 전통산업보다 새로운 산업(성장 산업)을 더 빠르게 흡수하는 방향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이라는 추세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장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라며 "코로나19는 새로운 산업의 탄생이 아닌 기존 성장산업을 가속한 계기"라고 덧붙였다. 이산철 기자 camus16@

## 상호변경 코스닥 상장사 '투자주의보'

자안 97%·네스엠 45% '뚝'  
31개사 중 8곳 주가 하락  
에이프런티어·아이톡시 등  
잡은 사명변경에 거래 정지

올해 7월까지 사명을 바꾼 코스닥 상장사 중 절반 이상이 거래정지, 주가 하락 등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통상 재무 악화,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 등에 봉착했을 때 상호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 현재 코스닥 상장사 중 37개 기업이 상호 변경을 공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6개 기업이 사명을 바꾼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추세다.

주로 기업 이미지 쇄신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상호 변경 이유로 내세웠다. 37개 상장사 중 54% (20개)가 사명 변경의 이유로 기업 이미지 쇄신을 꼽았다. 이어 합병과 분할이 24% (9개), 경영 목적과 전략에 따른 변경 19% (7개) 순이었다.

그러나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명 세팅에도 5곳 중 1곳꼴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한 6개 기업을 제외하면, 31개사 중 8개사가 상호 변경 후 주가가 하락했다. 사명을 바꾸면서 기업 이미지 변화를 시도했지만, 사실상 역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이중 가장 급격히 하락한 곳은 자안이다. 지난 3월 20일 한솔씨앤피에서 상호를 바꾼 후 7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97%가량 떨어졌다.

자안 주가는 최대주주가 바뀐 후, 액면분할, 무상증자 등을 실시하면서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네스엠(-45.2%), 엑스큐어(-34.5%), 케이알피앤이(-33.4%) 등도 새 옷을 입은 후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잡은 사명변경은 거래정지라는 악수로 이어졌다.

거래정지 상태인 에이프런티어는 과거 도원텔레콤에서 유젠텍, 다시 영인프런티어로 네 차례 상호를 바꾼 바 있다. 잡은 경영권 변동 끝에 라임자산운용 자금과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 현재 거래가 정지된 아이톡시(예당온라인→와이디온라인), 이큐셀

(에스엔텍→에스엔텍비엠), 이디티(유니맥스정보시스템→한컴유니맥스→리뷰어유니맥스→유니맥스글로벌), 아래스(에스디아이글로벌→에이엔티앤) 등도 2회 이상 상호를 바꾼 전력이 있다.

거래정지 상태에서 새로운 자본에 인수돼 상호를 바꾼 사례도 빈번하다.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문제로 여겨 거래가 정지된 이에스브이는 경남바이오파마가 인수하며 경남제약헬스케어로 사명을 바꿨다. 이큐셀, 아래스, 포티스 등도 거래정지 후 새로운 자본에 인수됐다. 해당 사례 기업들은 지리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황세은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상호변경은 시장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곤경에 처할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인수합병 등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모호한 이유로 상호변경을 시도했다면 해당 기업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상호변경한 이유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인아 기자 lj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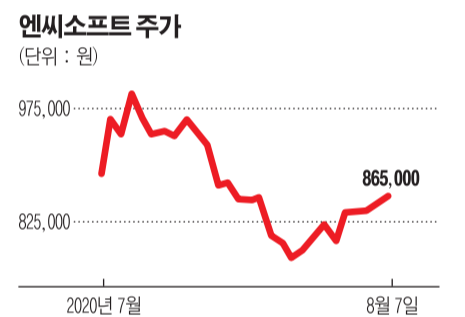
## '황제주' 깔딱고개 오르는 엔씨 경쟁작 등장에 주가 내리막길?

넥슨 '바람의나라' 출시 후 약세  
한 달 새 13% 하락 86만5000원  
증권가 "저가 매수 기회" 상승 베팅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수혜주로 꼽히며 주가가 주당 100만 원을 넘는 '황제주'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던 엔씨소프트가 최근 들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증권가는 여전히 상승 여력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7일 86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 달 전인 지난달 6일 장중 99만7000원까지 올랐지만, 약세를 보이며 이날까지 12.94% 주가가 빠졌다.

엔씨소프트는 언택트 수혜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19일 53만 원으로 연저점을 기록한 이후 주가가 상승세를 거듭하며 지난달 6일에는 주가가 99만5000원으로 무려 87.73%나 올랐다. 이에 국내 증시에 상장된 게임 기업 중 처음으로 시총액 20조 원 문턱을 넘었고, 코스피 시장에서 LG생활건강과 현대차, 삼성물산 등 쟁쟁한 기업들을 제치고 시총액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다.



당시 증권사들은 일제히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했다.

하지만 최근 리니지의 경쟁작으로 꼽히는 넥슨의 '바람의나라:연'이 출시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애초 모바일 시장에서는 '리니지M'과 '리니지2M'이 매출 1, 2위를 장기간 독점해 왔다. 하지만 '바람의나라:연'이 새롭게 출시되며 2위로 떨어졌다. '리니지2M'을 꺾은 것은 '바람의나라:연'이 처음으로, 기존 라인업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증권가는 엔씨소프트의 주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현재 엔씨소프트 목표주가를 제시한 22개 증권사 중 100만 원 이상을 제시한 곳은 18개 증권사다. 최고가는 미래에셋대우가 제시한 131만 원이고 최저가는 케이프투자증권의 81만 원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유진투자증권,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우수' 등급

2018년 '펼쳐'서 환골탈태... "판매 프로세스 전산화 주효"

유진투자증권이 금감원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의 유일한 '우수' 증권사로 등급했다. 2018년 증권가 펼쳐를 기록했지만, 지난 1년간 표준판매 프로세스를 재정비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힘쓴 결과다.

9일 유진투자증권은 2019년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평가에서 종합점수 97.8점을 기록하면서 '우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며 평가대상 17개 증권사 중 유일하다. 미스터리쇼핑은 전문 기관의 조사 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면서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지침에 맞게 상품을 판매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앞서 회사는 2018년 평가에서는 평가대상 15개 증권사 중 유일하게 가장 낮은 '저조' 등급을 받은 바가 있다. 이에 유창수 대표이사는 문제의식을 느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 프로세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표준판매 프로세스의 전산화 작업에 집중하면서 대안을 마련했다. 상담과정에서의 판매 절차 착오와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요소에 대한 제어 시스템 마련에도 주목했다. 아울러 자체적 미스터리쇼핑을 기존 연간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성과평가와 연동시켜 꾸준한 모니터링에도 나섰다.

유진투자증권 윤성근 준법감시인은 "작년 전 직원이 노력해서 미스터리쇼핑 결과가 좋게 나왔다"면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발해 유진투자증권이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www.bithumb.com

빙썸 지수 (2020년 8월 9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60,200	2,200 (0.6%▲)	이오스	3,601	33 (0.9%▲)
리플	347	-2 (0.6%▼)	비트코인골드	12,470	60 (0.5%▲)
라이트코인	68,100	150 (0.2%▲)	이더리움클래식	8,305	145 (1.8%▲)
대시	115,800	500 (0.4%▲)	퀀텀	3,272	108 (3.4%▲)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조합 집행부 해임 '둔촌주공' 연내 분양가물가물

## 노후 공공건축물 718개 그린리모델링사업 본격화

분상제 피했지만 분양가 산정 난항  
후분양 제기 속 재건축 또다시 혼란  
시공사업단과 조율·갈등분합 난관  
재건축 분양시기 가능하지 못하게 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면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전원 해임되면서 분양 시기를 가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조합 집행부 해임을 주도한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은 연내 분양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나 후분양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연내 분양은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여기에 해임된 조합 집행부가 이번 총회 결과와 관련해 법적조치까지 고려하는 등 양측의 갈등 역시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 집행부 해임...“연내 분양 나설 것” =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열린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찬성 97.7%로 조합장·이사·감사 등 조합 집행부 전원이 해임됐다. 이날 3807명이 서면결의서를 통해 참여의사를 밝혔고 875명의 조합원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다.

조합원들이 집행부 해임이라는 극단적 결정까지 내리게 된 것은 분양가 때문이었다. 조합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3.3㎡당 평균 2978만원의 분양가를 수용기로 했는데 조합원들이 반발한 것이다.

해임된 조합 집행부 측은 조합원들이 원한다면 일단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피한 이후에 HUG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 적용하에 분양가를 비교한 뒤 더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라며 조합원 달래기에도 나섰지만 결국 이번 해임으로 업무가 중단됐다.

조합원모임은 조합 집행부 해임 후 신청을 내고 집무대행자를 선정한 뒤 ‘전문조합관리인’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앉힐 계획이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외부의 정비사업 전문가를 초빙하는 제도로 관할구청이 공개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모임 측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전에는 대행 체제로 조합을 운영할 것이다”며 “올해 안에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

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분양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선분양이나 후분양이나를 확실하게 정한 것은 아니지만 분상제 아래 선분양 방식이 속도 등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 조합 집행부 ‘반발’...분양가 산정까지 난관은 여전 = 그러나 업계에서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장 조합원 모임 측에서 원하는 3.3㎡당 평균 분양가 3550만 원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분양가상한제는 신축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것으로, 이같은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분양가 심사위원들이 HUG가 제시한 분양가보다 비싼 일반분양가를 허용하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무엇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첫 적용 단지인데다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현 정부 성향 등을 고려하면 분양가 책정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도 크다.

후분양을 추진한다고 해서 상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방식이 바뀌면서 조합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자금 규모가 만만치 않은데다 시공사업단과도 다시 조율에 나서야 한다. 시공사업단의 경우 선분양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당장 해임된 조합 집행부와도 갈등 봉합도 문제다. 해임 조합 집행부는 현재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모임이 주도한 총회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증거보전 및 효력정지 가져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문성영 기자 moon@

시도별 총괄기획가 17명 위촉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역별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총괄 지원할 민간 전문가 그룹도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 그룹인 그린리모델링 총괄기획가를 선정해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각 시·도의 추천을 통해 총 17인으로 구성된 총괄기획가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들을 총괄·관리하게 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이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약 3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1호 사업인 서울시 상봉1동 어린이집 설계자인 임재용 OCA 건축사사무소 대표와 변창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센터) 사장은 설계계약 체결을 축하하며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국토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공모를 통해 총 718건의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지로 우선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8월중 설계계약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가수요 등을 감안해 8월말까지 사업대상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 논란 끊이지 않는 ‘부부 공동명의 장특공제’ 특례

## 국세청 “양도세 감면혜택 안돼” 임대사업자 “갑자기 축소” 반발

1가구 공동 명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

국세청은 최근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에 관한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항에 관한 유권해석을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공동 명의 등으로 임대사업자의 주택 지분이 1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 조항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공동명의 지분율 50%)를 갖고 있으므로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국세청 계산이다. 이 경우 A씨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는 많아야 30%로 줄어든다.

이 같은 해석이 알려지자 임대사업자 사이에선 반발이 일었다. 제도 도입 당시 제대로 된 안내도 없다가 갑자기 세제 혜택 대상이 줄었다는 게 이들이 분노한 이유다. 특히 임대사업자 가운데는 절세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과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한 이들이 많아 반발이 더 거세다.

국세청 해석은 법원 판례와도 부딪힌다. 대법원은 2017년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판결문은 “뚜렷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데도 특례조항을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각 임대주택의 지분비율을 합산해 그 호수를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법령 보안을 통해 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부분을 해소했다고 설명한다.

공동명의 임대주택 장특공제 특례 논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기재부 손에 달려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해석에 대해 납세자가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를 했고 현재 기재부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종화 기자 pbell@

### 금주의 분양캘린더

8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2만102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고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쏟아져 나온 영향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둘째 주에는 전국 총 25개 단지에서 2만1024가구(일반분양 1만2996가구)가

분양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써밋’과 서울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 천호역센터’, 경기 성남시 시흥동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등이 공급된다.

총 16개 단지에서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10일 울산 남구 야음동 ‘울산 대현시티 프라디움’과 11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 금강펜테리움 오션베이’ 등 주요 단지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계약 진행단지는 총 13곳이다. 10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와 13일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동두천 송내S1(공공분양)’ 등이 계약을 진행한다.

다음 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는 10곳이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SK 뷰아파트 포레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제SK뷰센트럴 등이 견본주택을 오는 14일 개관한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8/12 (수)	발표	대구	북구	태전동	태전역광산프로그레스
8/10 (월)	접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써밋 1순위(당해지역)	8/12 (수)	발표	대구	북구	태전동	태전역광산프로그레스
					청량리롯데캐슬SKY-L65 ♣						
8/11 (화)	발표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금강펜테리움오션베이(4BL)	8/13 (목)	접수	경기	성남시	신흥동	산성역자이푸르지오 1순위(당해지역)
					해링턴플레이스감삼 II 1순위						
8/12 (수)	발표	부산	영도구	동상동	오션라이프에일린의들(1·2단지) 1순위	8/14 (금)	접수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아트포레자이 1순위(당해지역)
					청라힐자웰다센트로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 하나금융 법인세 감액 소송 패소

## 1심 재판부 “IMF 때 출연금 뒤늦게 손금산입 요구... 과세원칙에 위반”

하나금융지주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출연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해 법인세를 감액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금융이 남대문사무서를 상대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32억 원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나은행은 1997년 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에 603억5000만 원을 출연했다. 2012년 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이 종료되면서 하나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분배받은 수익증권 193억3000만 원, 소송유보금 및 청산비용 등 61억 원 등 합계 254억3000만 원을 수익으로 계상해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냈다.

이후 하나은행은 2015년 1월 과세당국에 “출연금 603억5000만 원을 2013 사업연도 손금에 전부 산입해야 한다”며 법인세 감액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도 기각됐다. 이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 하나은행의 법인세를

낸 하나금융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손금산입(세법상 비용처리)이 클수록 법인세액은 줄어든다.

하나금융은 “2000 사업연도에 해당 출연금을 손금산입하기는 했지만, 당시 4조 원이 넘는 이월결손금을 보유해 (손금산입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에 낼 법인세가 없었다”며 “당시 손금에 산입한 출연금은 2013 사업연도까지 이월결손금 항목에 그대로 포함돼 이중 손금 공제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하나은행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자 2000 사업연도에 출연금 전액을 감액손실(비용)로 회계처리했다. 이후 감액손실만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따라 2000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됐다.

우선 법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세공평의 원칙 위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운용 기간 종료 후 청산해 그 잔여 자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2013년 2월 22일)이 속한 2013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최

종 귀속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0 사업연도에 이미 귀속시킨 손금에 대해서는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유지하고, 2013 사업연도에 재차 손금산입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금산입 시기를 납세자의 자의적인 의사 맡기게 되는 것으로 조세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이 2002년 2월 합병한 후 2000 사업연도 세무조정 오류를 파악해 이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뒤늦게 출연금을 2013 사업연도 손금으로 재차 산입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과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나금융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음 달 18일 항소심 첫 변론이 열린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했습니다



태풍 '장미' 복상에 대비한 선박들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 중인 9일 부산 동구 부산항 5부두에 선박들이 줄지어 정박돼 있다. 연합뉴스

# ‘민식이법’ 첫 구속 30대... 12일 재판

### 시속 30km 넘겨 주행 스쿨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A(3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타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한 그의 여자친구 B(25)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다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 스쿨존 규정 속도(시속 30km)를 넘겨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기소된 사례다. 지난달 제주와 부산에서 민식이법 위반으로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모두 불구속 기소된 운전자들이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달 12일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됐을 때부터 A 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B 씨 혼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 AI 양재 허브, 융합형 인재 1000명 키운다

## 서울시, 교육전문동 개관·연구개발 27.5억 투입

서울시가 인공지능(AI)특화거점인 ‘AI 양재 허브’에 교육전문동을 개관하고 올해 총 1000여 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서울시는 9일 “AI 양재 허브 입주기업 성장지원과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공격적인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AI 양재 허브에는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80여 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입주해있다. 입주 기업들은 2년간(2018~2019년 누적) 443명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60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362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도 성공했다.

서울시는 융합형 인재양성 교육을 본격화한다.

특히 교육전문동 1층에 ‘빅데이터 캠퍼스 분원’을 이달 말부터 가동한다. 서울시는 AI 양재 허브 입주기업의 빅데이터 이용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또 융합형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에서 한 발 더 나아가 ‘AI(인공지능)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의 유기적 연계를 꾀한

신규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AI 전문엔지니어 실무교육 △비전공자를 위한 기초소양교육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 등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입주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AI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규모도 전격 확대했다. 추경 반영예산을 포함해 올 하반기에 총 27억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www.douzone.com

DOUZONE

# ERP, 그 이상의 진화 더존 ERP 10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대신하며, 언제 어디서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 하나의 ERP-

더존 ERP10과 만나는 순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입니다

경영관리 효율은 물론, 기업가치의 극대화까지-  
지금, 더존 ERP 10에 주목하십시오!



안정적인 도입부터 차별화된 관리까지, 더존이라면 가능합니다

<p>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 더존올지타워</p>	<p>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DEWS 개념 플랫폼</p>	<p>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심계량공간 DTEC</p>	<p>전문 컨설팅 그룹이 검증 지원하는 FoEX 구축방법</p>	<p>국제 기준 품질관리 안정성 검증 CMMI Level3 인증</p>
-------------------------------------	--------------------------------------	------------------------------------	---	---

# 부동산 계약해지 위약금 줄 때 '소득세 원천징수' 해야

## 생활 속 세금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경우 강사로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아니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또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는데 이런 경우 봉사료에 대한 부분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좋을까. 이밖에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는 해야한다= 경기도 인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영웅 씨는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한 번 초청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떼 후 강사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급까지 단 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영웅 씨의 기장을 대항하고 있는 세무사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에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인적용역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고 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에 의해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안 할 경우 지급하는 자가 세금 대신 물어

음식·숙박·이용원·마사지 등 전표에 용역대가·봉사료 구분 봉사료 20% 초과 땐 원천징수

최근 텔런트나 영화배우가 CF에 출연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텔런트 등의 CF출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이유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달라 세부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인적용역사업소득의 범위는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직업운동가·기수·운동지도자(심판을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등을 권유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작명·관



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 사무 용역 등이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초과·소득세 원천징수해야= 강남에서 룬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이양주 씨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원을 추징받았다. 이는 이 씨가 그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 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봉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룬살롱·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이용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로,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또는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술값 등을 봉사료와 나누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봉사료로 처리한 금액을 수입금액(공급대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지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원천징수 대상 여부 꼭 확인하세요= 홍재철 씨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 원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전하려고 하는 공장부지 취득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외에 위

약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적이 있다.

홍 씨의 경우처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국세청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소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지만,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때에는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해야 한다. 따라서 홍 씨의 경우처럼 소득세 1000만 원(위약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000만 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과 개인지방소득세 100만 원을 원천징수할 경우 위약금과 배당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만 지급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만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은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경마의 승마투표권 및 경륜, 경정의 승자 투표권의 당첨금품 △저작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저작권 양도대금 또는 사용료 △영화필름,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에 대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은 금품 △광업권, 어업권,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채취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해당 대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이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자료제공 국세청




**신격호의 도전과 꿈**  
롯데월드와 타워

오쿠노 쇼 지음

##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지낼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소공동 롯데타운, 세계 최초의 대형 실내 테마파크인 잠실 롯데월드, 그리고 오늘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123층 초고층 빌딩 롯데월드타워에는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신격호 회장의 평생의 꿈이 녹아 있다. 신격호 회장과 50년을 함께한 일본인 건축가 오쿠노 쇼를 통해 본 인간 신격호 이야기.

‘신격호 회장이 맨해튼 한복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담판 나선 사연은?’  
무모하리만치 과감했던 신격호 회장이 만들어 낸 롯데월드의 도전,  
저자 오쿠노 쇼의 건축사무소에 잠들어 있던 미공개 계획안들을 통해 밝혀진 그의 꿈.

**신격호 회장의 구상을 담은 도면과 이미지 400여 장 마침내 공개!**



양장본 | 윌커리 | 국배판 변형 | 값 35,000원

Tel. 031-955-4601 **남남**  
www.nanam.net nanam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 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yd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 뱅크골프클럽으로 100yd 더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김혜윤(KLPGA 5승, SBS골프아카데미방송, KLPGA K10클럽 수상),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양제윤 (KLPGA 2승, KLPGA 대상),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료,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 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김나리 (JLPGA 2승),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골프 레슨 방송, JTBC골프 해설위원)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도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장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 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주)뱅크골프코리아

대표전화 1544-8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 1층

www.banggolf.co.kr



# “勞使 운명공동체... 대화 끊기지 않는 소통채널 역할”

### SK하이닉스 노사불이 신문화추진협 이상민·이미숙 TL

#### 1995년 노사 함께 출범... 30년 무분규 사업장 기록 이어가 “어제 팽팽한 줄다리기가하다가도 오늘은 한곳 바라보는 동료”

“결국 노사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 공동체잖아요. SK하이닉스가 오랜 시간 꽃피워 온 ‘노사불이(勞使不二)’ 문화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다른 기업들에도 퍼져 나가길 바랍니다.”

노사불이 신문화추진협의회(이하 노사불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이상민·이미숙 TL(기술·재능 리더)의 바람이다.

SK하이닉스는 30년간 ‘무분규 사업장’ 타이틀을 지켜왔다. SK하이닉스가 상생과 화합으로 상징되는 노사관계를 유지·개선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 공동 상설 협의체 ‘노사불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사불이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고자 1995년 SK하이닉스 노동조합과 사측이 함께 시작했다.

노사불이 운영을 담당하는 ER운영팀 이상민 TL은 “어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노사가 서로 팽팽한 줄다리를 했더라도,

오늘 노사불이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만큼은 한 곳을 바라보는 동료가 된다”며 “어떤 상황에도 대화가 끊기지 않는 소통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불이의 운영기금은 구성원의 끝돈(급여의 마지막 단위인 1000원 미만의 금액) 기부와 회사의 후원이 함께 이뤄지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구성원 행복 증진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과 경기도 이전시 취약계층을 돕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쓰인다.

노사불이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구성원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운영에 있어 새롭게 고민해야 할 이슈들도 생기고 있다. 이상민 TL은 노사불이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양한 구성원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소통 과정”을 꼽았다. 노사불이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이 커지면서 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제안하는 현



SK하이닉스 노사 공동 상설 협의체 ‘노사불이 신문화추진협의회’ 운영을 담당하는 ER운영팀 이상민(오른쪽)·이미숙 TL.

장의 목소리도 높였기 때문이다.

그는 “최대한 많은 구성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지만, 정해진 예산과 인력 상황 때문에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가급적 더 많은 혜택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사회공헌 활동의 재개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미숙 TL은 “단순한 성금 모금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에 걸맞은 노사불이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민·이미숙 TL은 다른 기업들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별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노사불이가 단순히 기업 내 이해당사자들을 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주변으로 확산하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노사불이가 ‘대립’과 ‘갈등’으로만 묘사돼 온 기업의 노사문화에 ‘상생’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부여하는 역할 모델로서 기능하길 바라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美 바이든 러닝메이트 주목받는 두 여성후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유력한 러닝메이트 후보로 두 명의 여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과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휘트머는 바이든과의 비공개 면담이, 라이스는 넷플릭스 지분 매각이 각각 이슈가 됐다.



###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이달 초 바이든과 면담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은 2일 델라웨어에서 휘트머 주지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은 지난 3월 자신의 러닝메이트가 될 부통령은 여성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인선 작업을 벌여왔는데, 공식 부통령 후보 발표를 코앞에 두고 하마평에 올랐던 휘트머 주지사과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CNN은 그동안 바이든은 휘트머 주지사를 예의주시해왔으며, 여전히 진지한 고려 대상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번 소식은 정계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휘트머 주지사는 여성 후보군에 오르는 했지만,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은 아니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거세게 벌어졌던 만큼 바이든이 백인보다는 흑인 여성을 러닝메이트로 낙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백인 여성인 휘트머 주지사는 그동안 바이든의 부통령 후보 리스트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두 사람의 만남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숨에 유력 후보로 떠오르게 됐다.



### 라이스 전 안보보좌관 넷플릭스 지분 매각 왜

한편 같은 날 유력한 예비 후보로 꼽히던 라이스 전 보좌관은 넷플릭스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내용을 인용, 그가 보유하고 있던 넷플릭스 스톡옵션 5200주 중 25%가량을 매각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라이스 전 보좌관이 곧 발표될 민주당 부통령 후보 결정을 의식해 스톡옵션을 처분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라이스 전 보좌관은 “스톡옵션 매각 계획은 이미 3개월 전 SEC에 신고한 것”이라며, 이번 매각은 바이든의 부통령 후보 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흑인 여성인 라이스 전 보좌관은 백악관 경험과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바이든과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어 유력한 러닝메이트 후보로 꼽혀 왔다. 라이스 전 보좌관을 지지하는 인사들은 그를 후보로 발탁한다면 오바마 부부의 적극적인 선거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 집중호우 피해 복구, 재계 힘 모은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연천군을 찾아 침수 제품 세척 및 무상점검 등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자들이 경북 영덕 강구시장에서 현대차 세탁구호차량을 이용해 세탁 봉사를 하고 있다.



LG전자 임직원들이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를 입은 대전에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물에 잠긴 가전제품을 고치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최근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을 위로하고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7일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30억 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13개 계열사가 동참했다. 삼성은 성금 이외에도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복구를 돕는 △침수 전자제품 무상점검 특별 서비스 △이동식 세탁차량 지원 △사랑의 밥차 지원 △수해지역 중장비 지원 △삼성의료봉사단 현지 의료 지원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특히 피해가 집중된 대전과 경기도 일부 지역 현장에 특별 서비스팀을 파견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삼성의료봉사

### 삼성 30억, 현대차·LG·SK 20억 등 그룹사 구호 성금 잇따라 가전 수리·중장비 파견·차량 점검...기업 특성 살린 복구 지원

단은 현지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을 파견해 주민의 건강을 점검하는 등 의료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삼성물산은 피해 수습을 위해 굴착기, 덤프트럭, 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를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

LG도 수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LG전자를 비롯해 계열사별로도 침수 가전 무상 수리, 생필품 지원 등 긴급 구호에 나서고 있다.

SK그룹도 성금 20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내기로 했다. SK텔레콤과 SK브

로드밴드는 수재민의 침수폰 수리를 위한 애프터서비스 차량을 긴급 투입하고, 대피소에 와이파이와 IPTV를 무료로 지원기로 했다. 또 그룹차원에서 주거환경 개선 전문 사회적기업인 ‘희망하우징’과 함께 수해를 입은 전국 소규모 보육시설의 시설 복구를 지원하고, 위생관리 전문기업 ‘가온아이피엠’과 함께 시설 방역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피해 복구와 수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성금 20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

국재해구호협회에 10일 전달한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차량에 무상 점검,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직원들은 긴급 지원단을 구성해 생필품 지원과 세탁서비스 등의 긴급 구호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차는 피해 고객이 수리를 위해 수해 차량을 입고하고 렌터카를 대여하면 최장 10일간 렌터카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기아차는 수해 차량을 폐차한 뒤 기아차를 재구매하면 최장 5일 동안 무상으로 렌터카를 제공한다.

현대중공업그룹도 ‘1% 나눔재단’을 통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억 원을 냈다. 그룹은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굴착기 등 구호 장비와 인력 지원도 약속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 인사

- ◆교육부 △장관비서실장 이윤홍 △혁신행정담당관 김정연 △운영지원과장 이영찬 △교육부 김현수 김홍순 △충북대학교 국제교류본부 행정실장 박종필 △한국교통대학교 학생과장 배기주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스마트도시팀장 허나운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지주회사과장 구성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강성탁 △기획조정관 혁

- 신기획담당관 신종철 △기획조정관 심사총괄담당관 강대현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양기철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여상수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이병남 △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전정책과장 이한샘 △개인정보정책국 자율보호정책과장 원세연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장 정혜원 △조사조정국 침해평가과장 고남현 △조사조정국 분쟁조정과장 이승희 △위원장실 비서실장 나재목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

- 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장 이정림
- ◆산림청 △과(팀)장급 전보 △코로나19 긴급대응반장 김진아 △산림일자리창업팀장 김중근
- ◆한국에너지공단 △부서장 전보 △신재생에너지산업실장 박병준 △안전지역본부장 하경용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팀장 임용 △전통생활문화본부 전통생활문화진흥팀 조서영 △전통생활문화본부 전통생활문화산업팀 이정훈
- ◆KBS △경영본부 경영정보국장 이순화 △지역정책실 지역혁신부장 도기태

### 부음

- ▲강대현 씨 별세, 이복배 씨 남편상, 강성근(KBS 아나운서실 방송위원)·성구(에이포하우스 영업대표)·성철(삼성전자전무) 씨 부친상 = 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11일 오전 6시45분, 장지 대전 국립현충원, 02-3410-6919
- ▲연규철 씨 별세, 이재선(전 국회의원) 씨 장인상 = 8일, 대전시 중구 대흥동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0일 오전 8시 40분, 042-220-9870
- ▲진형상 씨 별세, 진영민(SK실트론 코

- 퍼레이트 센터장)·영호·영희 씨 부친상 = 8일, 장원경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 055-214-1900
- ▲배기은(효성그룹 전 부회장) 씨 별세, 조영석 씨 남편상, 배종서(화진테크로 대표이사)·정선·민선 씨 부친상, 박상범(재미) 씨·서창희(법무법인 광장) 씨 장인상 = 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7시, 02-3410-3151
- ▲박옥선 씨 별세, 최면국(운수업)·동국(건국대학교수)·홍국(대구한국일보 부장) 씨 모친상 = 7일, 대구기톨릭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10시30분, 053-650-4444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법고창신의 정신

〈法古創新〉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구심점은 지난 60년 동안 일본 정부 지원 아래 운영해 오고 있는 기술연구조합(CIP)이다. 기술연구조합은 다수의 기업, 대학, 독립연구법인들과 협력 아래 공동 시험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극복하고 기술 실용화를 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다.

일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 구심점은 지난 60년 동안 일본 정부 지원 아래 운영해 오고 있는 기술연구조합(CIP)이다. 기술연구조합은 다수의 기업, 대학, 독립연구법인들과 협력 아래 공동 시험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극복하고 기술 실용화를 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다. 일본 정부는 1961년 영국의 연구조합을 본 따 '광공업 기술연구조합법'을 제정했다. 이를 2009년 '기술연구조합법'으로 바꿔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기술연구조합 수는 현재 58개로 이중 46개가 경제산업성 산하에 속해 있다.

일본 정부가 기술연구조합을 다시 전면으로 들고 나온 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의 일본 반도체 산업을 약진시킨 성공의 역사를 되살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1976년 미국 IBM의 차세대 컴퓨터에 대항하기 위해 '초LSI(대규모 집적회로)기술연구조합'을 설립했다. 일본은 이 조합을 1980년까지 운영하며 미

국 반도체 산업을 제쳤다. 이에 맞서 미국이 국방부 주도의 반도체연구소(SEMATEC)를 설립하고, 국립과학재단(NSF)을 통해 산학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미·일 반도체 전쟁의 시작되었다. 이 전쟁이 지금은 한국, 미국, 대만, 중국, 일본으로 구성된 '2강 2중 1약'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일본은 완연한 쇠락의 늪에 빠진 형국에 놓여있다.

일본 언론들은 반도체 복원을 꿈꾸면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미진했던 산학 협력의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주 일본 언론에 보도된 2건의 뉴스는 이를 곧바로 상징하는 것이었다.

'1000km 달리는 EV(전기자동차)에 교토대·도요타가 차세대 전자'라는 제목의 기사는 1회 충전으로 도쿄부터 후쿠오카까지의 1000km를 달리는EV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리튬이온전지를 축전능력에서 7배나 능가하는 '플로라이드(불화물)이온전지'를 개발하는 야심 찬 전략을 소개했다. 리튬이온전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에너

지 밀도가 가능한 꿈의 전지로 세계적인 연구개발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분야다. 리튬이온 전지만으로도 세계시장 규모는 3년 후 약 60조 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일본은 이미 10년 전에 '전지를 제패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가치를 내걸고 '기술연구조합 리튬이온전지재료평가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축전지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일본은 길거리에 산재한 EV가 태양광발전 등의 전기를 비축한 축전지가 되어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체가 사용하는 '거대한 축전지망(網)'을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또 하나의 뉴스는 '소프트뱅크와 도쿄대, AI(인공지능)의 공동연구를 개시'라는 제목으로 시선을 끌었다. AI 분야 산학 공동연구에 관한 뉴스다. 소프트뱅크와 도쿄대는 지난 5월 'Beyond AI 연구추진기구'를 설립하고 대학 내에 중핵거점을 설치했다. 7월 말에는 헬스케어와 스마트 시티, 차세대 이동서비스(Mass) 등 4개 영역의 기초연구 과제 10건을 선발했다. 소프트뱅크 그룹과 자회사 야후는 향후 10년

간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소프트뱅크는 데이터 분석과 AI 개발을 지원하는 50명 규모의 전문조직을 만들어 사업화를 뒷받침한다. 도쿄대는 100명 넘는 연구자를 내세워 AI 예측모델 개발 등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른바 기초 연구의 사업화 전략이다.

이같은 교토대-도요타, 소프트뱅크-도쿄대의 산학 공동 연구사업은 경제산업성이 추진하는 'CIP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CIP 제도는 향후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에 의해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디지털 자본주의로의 대전환이다. 이같은 대전환 속에서 산업경쟁력 복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의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옛날 것을 본받으면서 변화할 줄 알고, 새로운 것을 지으면서도 법도가 있어야 한다. 한국도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 회장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최근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월세 제한 등 각종 규제는 물론이고, 다주택 및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대폭 올렸다. 그러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를 하면서, 이와 동시에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서로 엇박자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세계개편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기존 세율에 최대 30%포인트까지 가산하였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6%(농어촌특별세 포함 7.2%)까지 올렸다. 또한, 1주택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위적으로 올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자동으로 인상되었고,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도 3%(농어촌특별세 포함 3.6%)까지 올렸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뿐만 아니라 1주택자 중과

세표준 9억 원이 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농특세를 포함하는 경우 3.6%)까지 오르기 때문에 원본 잠식의 수준이 되었다. 내년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금은 더 증가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기획재정부와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2008년에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를 발표하면서, '최고세율이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후 원본잠식을 초래→ 독일에서는 20년 만에 원본잠식의 경우 세계가 아니라 규제라는 학설', '중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계', '주택 최고세율 3%(농특세 포함 시 3.6%)는 원본을 잠식하는 징벌적 성격이므로 담세력 수준을 고려하여 1%로 조정' 등을 언급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2008년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 상승이 실질적인 조세 지불 능력의 증가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주택가

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과세 대상인 주택의 처분을 강요하는 것에 다를 바 없다'라고 한 바 있다. 이처럼 기획재정부와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에 대해 보수적이었고, 특히 1주택자에 대해 특별 배려를 강조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계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면서도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라는 한 줄 외에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 사유재산, 쾌적한 주거생활 등을 통해 주택을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매우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 이 점에서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축소하는 등 특별히 다룰 필요가 있다. 공공복리를 과도하게 앞세워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심대하게 박탈하는 수준의 징벌적 과세는 곤란하다. 다주택자도 원본잠식의 징벌적 과세는 무리이다. 헌법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지

적했듯이, 주택시장안정화는 조세정책보다는 시장경제에 기초해야 한다. 납세자에 불리한 것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말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행일과 세율에 상당한 유예기간을 뒤야 한다.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및 신뢰이익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조세부담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세금 인상은 결국 탈이난다. 특히 미실현소득에 대한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수록 그렇다. 세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원본잠식 수준 세율의 인하와 양도세 비교세 9억 원의 상향 등이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산세의 세율을 1% 이내로 고정하고, 과세표준도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취득 후에는 인플레이션율과 2% 중 낮은 값으로 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유세를 인상했다면 거래세는 내려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거래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가장 높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해도 7위이다. 이 점에서 1주택자의 각종 세금을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보금자리를 잘 살펴 줄 필요가 있다.

☆ 허버트 후버 명언 "군사 개입이나 무기, 외교보다 식량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훨씬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재임 1929~1933). 광산 관련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그는 미국 구호청장으로 재임하며 전후 식량 원조사업을 총괄했다. 대통령 취임 몇 달 뒤 터진 대공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했으나 실패하고 재선에 실패했다. 그는 오늘날 태어났다. 1874-1964.

☆ 고사성어 / 군주인수(君舟人水) 군주는 배, 백성은 물이라는 말. 백성이 군주를 보호할 수도 정권을 전복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원전은 공자가 노(魯) 나라 애공(哀公)과 참된 군주의 자세에 대해 한 말.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한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君者舟也 庶人者水也 夫水所以載舟亦所以覆舟]."

☆ 시사상식 / CDO(Chief Destruction Officer)

미래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질서와 관행을 파괴하고 과감한 경영혁신을 시도하는 파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최고파괴자라는 뜻. 특정 문제에 대한 점진적 해결보다는 파괴를 통한 급진적인 개혁이 기업 성공의 관건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말 유래 / 찜사리 청하지도 않은 사람이 슬며시 끼어들어 올 때 '찜사리 끼지 말라'고 한다. 역마살, 도화살, 공방살 등 살(煞)이 곱으로 끼는 '곱살'에서 왔다.

☆ 유머 / 더 똑똑한 개 두 여인이 만나 자신의 애완견 자랑을 했다. 한 여인이 "우리 '뽀뽀'는요 아침마다 갓 구어낸 빵을 사와요"라고 했다. 다른 여인이 알고 있다고 하자 반색하며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한 그 여인의 대답. "우리 '환희'가 얘기해 줬어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내가 속한 업계의 부끄러운 얘기부터 해야겠다. 어릴 적 때문에 '신문 사절'이란 종이를 붙여놓는 집이 많았다. 신문사에서 원하지 않는 신문을 계속 배달하니 생긴 풍속이었다. 그 때문에 싸움이 나는 집도 있었다. 원치 않는 신문을 들이미니 언론의 권위와 신뢰도 떨어졌다. 신문 사절 중 이는 종이신문이 멸종 위기에 몰리고 나서야 사라졌다.

부동산부에 와서 처음 쓴 칼럼이 '월간 흥남기' '주간 김현미'였다. 말이 씨가 됐다. 부동산을 담당한 지 열 달째인데 부동산 대책이 12·16 대책부터 시작해 8·4 대책까지 여섯 번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보다 더 적게 셀 수도 있다.) 5월부터는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부동

산 대책을 만들어냈다.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올봄만 해도 정부는 여유로워 보였다. 12·16 대책 말발이 먹힌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집값이 내림세였기 때문이다. 5월엔 "주택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잠실과 용산 개발 구상을 내놨다.

정부가 만든 개발 호재에 집값이 들쭉였다. 바로 다음 달 정부는 "주택시장의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규제로 돌아섰다. 수도권 대부분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상황 오판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느닷없는 고강도 규제는 이대로면 집을 마련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주택 구입

기자수첩



박종화 부동산부/pbell@

'부동산 대책 사절'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Includes contact info and address.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부동산 정책이 욕망과의 전쟁인가

최근 다양한 연령대가 모인 한 식사 자리에서 역시나 부동산을 주제로 한 대화가 오갔다. 40대 가장은 아이들 학교 진학을 감안해 다른 동네로 이사해볼까 생각하다가 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져 허탈하다고 했다. 30대 기혼자는 2세 계획에 맞춰 집을 사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전셋집의 매매 가격이 1년 사이에 1억 원 이상 오르는 걸 보고 '영끌'을 해도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아 밤에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했다. 20대 미혼자는 진작에 전셋집 대출을 받아놓을 걸 이전 집을 사기는 커녕 전셋집마저 늘리기 어려워져 후회막심이라고 했다. 언론 보도로 익히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직접 당사자들의 사연을 들으니 그들의 걱정과 분노가 고스란히 전달돼 내 마음도 복잡해졌다.

저금리에 임대차 제도 변화와 보유세 부담까지 더해져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월세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모든 사람이 강남 살 필요 없다"(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걸 벗어난 역사적인 날"(윤호중 법사위원장), "전세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이고,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며 말의 성찬을 쏟아낸다.

하지만 월세 시대는 대다수의 젊은세대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꾸지 말란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전세와 월

## 데스크칼럼

이효영

부국장 겸 유통비이오부장



세의 차이는 은행에 낼 돈을 집주인에게 내는 정도의 그런 간단한 차이가 아니다. 그동안 전세는 주택을 소유하기 전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활용돼 왔다. 전세 비용을 올리면서 집 크기를 늘리다가 결국 은행 대출을 보태 내 집을 사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살아온 삶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 그만큼 자산 축적이 어려워지게 된다. 한마디로 전세 비용은 집을 빌렸다 돌려받을 수 있는 '내 돈'이지만 월세는 집주인에게 주고 돌려받을 수 없는 '사라지는 돈'이다. 만의 하나 월세를 꼬박꼬박 낼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이 갑자기 부족해질 경우 점점 집 평수를 줄이거나 주변부로 밀려나는 위험 부담도 전세보다 더 커진다.

현 정부 들어 20차례가 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르는 집 값에 불안감이 극에 달한 3040세대는 급기야 '패닉 바잉'이라는 행위로 불안에 저항하고 있는 것 같다. 은퇴가 코 앞에 닥쳤는데 살고 있는 집 한 채로 보유세 폭탄을 맞은 중장년층보다 앞으로 영영 내 집을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젊은 세대의 공포가 훨씬 더 심각해 보인다.

실제로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최근 만 25~39세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응답)한 '밀레니얼 세대, 신투자인류의 출현'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최우선 재무적 목표로 '주택 구입을 위한 자원 마련'(31%)을 꼽았다. 밀레니얼 세대는 재테크 관심은 서점가의 책 판매에서도 확인된다. 교보문고가 올해 주식, 부동산투자 등 테데크 서적 구매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30대(38%)와 20대(15%)가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주(7월30일~8월5일) 예스24, 인터파크도서, 교보문고 등의 베스트셀러 집계에는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부의 대이동', '돈의 속성', '킵 고잉' 등 투자 관련 서적이 10위권에 대거 올랐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내 집 한 칸 갖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 아니, 인간 본능을 거스르는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더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든 사례를 그간의 수많은 역사가 이미 보여주었다.

더구나 지금 한국에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20~40대는 적어도 취업부터 결혼, 자녀 출산, 교육, 노후 준비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헬조선'의 각종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이들이다. 정부가 치밀하지 못한 수습차례 부동산 정책에 땀집에 땀집을 거듭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팍팍한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꿈과 욕망까지 가로막지는 않길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

hylee@

## 시설

###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혼란만 커지는 악순환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소급해 폐지하는 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된지 몇일도 안돼 혜택 일부를 되살리는 방안을 내놨다.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가 논란과 반발이 커지자 뒷수습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조세감면을 축소키로 한 조치에 대한 땀집이다. 이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세놓은 임대주택을 팔 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의무 임대기간(4~8년)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토록 하고, 4년 짜리 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최소 5년이 필요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불과 3년전 정부의 권장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람들에 부과세가 부과되면서 소급 적용 논란과 반발이 확산됐다. 정부·여당이 서둘러 대책부터 내놓고 부실한 입법을 밀어붙인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 혼란이 가중되자 다시 땀집을 거듭하면서 결국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증폭하고 있다.

전격적인 법 제정과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3법'도 전셋값 폭등과 임대·임차인 간 갈등 확대, 매물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제가 예고된 이후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대폭 올렸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주까지 58주 연속 올랐다. 5월부터 상승폭이 커졌고 강남권이 으뜸세를 주도했다. 반전세와 월세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예상됐던 현상이다.

그러자 정부·여당은 다시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연 4~5% 수준에서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인 2% 수준으로 내리고, 아예 표준임대료 공시제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월세시장이 정부 개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겠다는 건데, 집주인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 당장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물량 감소로 살 집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역풍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어떤 부동산대책도 시장에 먹히지 않고 오히려 내놓는 정책마다 매매와 전세 할것없이 가격만 자극하고 있다. 적절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속 수요만 억누르는 정책을 급조해 밀어붙이는데 급급하다보니 자꾸 문제가 드러나고 시장은 반발한다. 그리고는 땀집을 되풀이하는 혼란의 연속이다. 대책의 강도는 높아지지만 시장의 신뢰를 잃고 서민들의 고통만 심화하는 악순환이다.

## 송영록의 이슈노트

산업부 차장



### 외계인이 만든 '갤럭시 Z 폴드2'

폴드를 승계하는 제품이다. 갤럭시폴드와 '갤럭시Z 플립'의 장점을 모아 만든 야심작이다.

맛배기로 제품의 언박싱 장면 등을 공개했는데, '이건 갖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만큼 매력적인 제품이었다. 특히 두 차례 폴더블폰 출시 경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사용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했다. 먼저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를 확 늘렸다. 6.2인치로 웬만한 대화면 스마트폰 사이즈다. 또 힌지와 커버 화면에 새로운 설계구조를 적용해 기존보다 성능을 크게 높였다. 갤럭시폴드와 갤럭시Z폴드가 출시 직후 내구성 문제가 불거졌던 점을 감안해 이를 집중적으로 보완한 것.

삼성전자 측은 "갤럭시Z 폴드2는 완전히 새로운 힌지 설계를 통해 새로운 폴더블 경험과 한층 강화된 내구성을 제공한다"며 "또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얇은 UTG를 적용해 디스플레이의 유연성과 강도를 동시에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가격은 낮췄다. 갤럭시Z 폴드2의 출고가는 전자 갤럭시폴드(235만 원)보다 조금 낮은 225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대로 된' 폴더블 스마트폰을 양산하는 제조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화웨이와 모토로라 등이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품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화웨이의 폴더블폰 '메이트Xs'는 중국 이외 시장에서의 판매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내에서도 흥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화웨이는 폴더블폰 판매량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토로라 역시 지난 2월 폴더블 레이저를 공개했지만, 낮은 품질로 오히려 이슈가 됐다. 후속작을 준비 중이라지만, 1세대 완제품을 본 사람이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애플의 폴더블폰 시장 진입은 미지수다. 당분간 혹은 꽤 오랜 기간 '삼성 천하' 일거다. 삼성이 확실한 퍼스트무버로 자리를 굳힌 것이다. 피쳐폰 시절부터 이어온 휴대폰 제조 노하우와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 등 부품 기술력, 또 중소소재·부품·장비 협력사들과 힘을 합쳐 이뤄낸 기술 개발 등이 주효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삼성에는 외계인이 있다. 삼성은 그들에게 원하는 기술을 얻어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한다." 진짜 삼성에는 외계인들이 있다. 모든 삼성 임직원들이 외계인이다.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syr@

### 미리 보는 한 주 코로나 6개월, 취업자 감소폭 줄어들까

이번 주에는 6개월째를 맞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가늠할 7월의 고용 및 금융시장 관련 지표가 잇따라 발표된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10일(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을 내놓는다. 6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103억 원으로, 지난 2월 7819억 원을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두 달째 1조 원을 넘어섰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7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만4000명 늘었다. 지난해 평균 50만 명 안팎의 증가폭을 보이다가 올해 4월 16만3000명, 5월 15만5000명으로 고꾸라진 이후 첫 반등세를 보였는데 이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이어 12일(수)에는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이 나온다. 6월 취업자 수는 35만 2000명 감소했는데, 3월 -19만5000명, 4월 -47만6000명, 5월 -39만2000명에 이어 4개월 줄어든 것이다. 다만 4월을 저점으로 감소 폭이 줄고 있는 만큼 7월 흐름에 변화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6월 실업자 수는 122만8000명으로 1년 전

보다 9만1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0.3% 포인트 오른 4.3%를 기록했다. 두 가지 모두 6월 기준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7월 중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를 공개한다. 6월의 경우 은행권 가계 대출이 5월보다 8조1000억 원 늘었다. 6월만 놓고 보면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였다. 특히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의 기타대출(잔액 242조 원)이 3조1000억 원이나 늘어 역시 6월 기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권 기업 대출 잔액(6월 말 946조7000억 원)도 5월 말보다 1조5000억 원 늘었다. 7월 역시 자금난을 겪는 가계와 기업들이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기획재정부는 11일(화) 나라살림 행편을 알 수 있는 월간 재정동향을, 14일(금)엔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진단을 엿볼 수 있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공개한다. 한은은 13일(목) '6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발표한다. 정리·홍석동 여론조사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http://www.etoday.co.kr)



세상을 바꾸는 금융

오늘의 안심이  
 내일로 이어지도록  
 내일의 희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도록  
 KB금융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있어  
 작은 일도 큰일도 함께 지켜주니  
 일상도, 일생도 든든합니다

오늘의 안심부터  
 내일의 희망까지

**보험도 역시 KB**



**보험이 더 쉬워지도록**  
 .....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좋은 습관은 키울 수 있도록**  
 .....  
 안전주행으로 보험료 혜택을 받아요

**기다림도 안심되도록**  
 .....  
 긴급출동 기사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요

**마음껏 도전하도록**  
 .....  
 공유 주방에서의 새로운 출발도 든든해요

**우리 가족 평생 든든하도록**  
 .....  
 작은 질병부터 큰 사고까지 보장받아요

**꿈이 현실로 이뤄지도록**  
 .....  
 은퇴 후 버킷리스트 실행 자금을 마련해요

KB 손해보험 | KB 생명보험 | KB 국민은행

KB 증권 | KB 국민카드 | KB 자산운용 | KB 캐피탈 | KB 부동산신탁 | KB 저축은행 | KB 인베스트먼트 | KB 데이터시스템 | KB 신용정보

**\* KB 금융그룹**